
2025학년도 제12회 보건복지연구소 학술대회
- 돌봄과 테크놀로지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인사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돌봄의 본질과 미래를 함께 성찰하고자 제1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돌봄과 테크놀로지」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돌봄의 방식과 범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술이 인간의 손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가치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가치와 학제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통합돌봄, 사회복지 실천, 디지털 헬스케어, 인간-기계 상호작용, AI 기반 케어 혁신 등 각 영역에서 선도적인 연구와 실천을 이끌어 오신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만나 기술과 돌봄의 조화를 탐색하는 풍부한 지적 교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포스터 발표는 우리 대학의 교육적 자산이자 미래 돌봄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성과입니다.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보건복지연구소 운영진, 그리고 보건복지대학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기술 발전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돌봄'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하고, 보건복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학문적·실천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과 평안한 새해를 기원하며,
보건복지연구소장 이세원 올림

일정표

2025학년도 제12회 보건복지연구소 학술대회

일시: 2025. 12. 4.(목)

장소: 보건복지대학3호관(W2) 태화홀

사회: 장수정 학술부장(보건복지연구소, 간호학과)

13:30~	등록 및 포스터 게시	
14:00~	개회사 및 축사	이세원 소장 (보건복지연구소, 사회복지학과) 최혜진 보건복지대학장 (유아교육과)
14:10~	디지털기술 기반 돌봄 사례: 인공지능 육창예방 매트리스와 스마트 방석을 활용한 외상환자 및 이동약자 케어 혁신	조기한 부대표 (주) 네오에이블
14:50~	디지털 기술과 사회복지가 만나다: 복지관의 실천 사례 중심	윤수진 팀장 (법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15:30~	통합돌봄 실행전략-휴먼 디지털 플랫폼과 지역 보건의료 자원 연계	김영민 대표 (바야다홈헬스케어)
16:10~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돌봄: 이점과 도전	박경옥 교수 (간호학과)
16:50~	AI 캠퍼스 소개	주용완 교수 (산학협력단)
17:00~	폐회	장수정 학술부장 (보건복지연구소, 간호학과)

목|차

[발표 1] 디지털기술 기반 돌봄 사례: 인공지능 욕창예방 매트리스와 스마트 방석을 활용한 외상환자 및 이동약자 케어 혁신	1
[발표 2] 디지털 기술과 사회복지가 만나다: 복지관의 실천 사례 중심	17
[발표 3] 통합돌봄 실행전략-휴먼 디지털 플랫폼과 지역 보건의로 자원 연계	40
[발표 4]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돌봄: 이점과 도전	55
[발표 5] AI 캠퍼스 소개	70
[포스터 발표 1] 협력적 교우관계와 학업성취도의 상관성	72
[포스터 발표 2] 친구관계 좋은 학생이 자존감 높다	74
[포스터 발표 3] 유튜브에 중독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	76
[포스터 발표 4] 연락처(카톡)와 인스타그램 아이디(DM) 교환의 심리적 거리감	78
[포스터 발표 5]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불편해질 때	80
[포스터 발표 6] 숏폼 많이 볼수록 숏폼중독 덜 자각	82
[포스터 발표 7] 여행영상에 몰입하면 벌어지는 일	84

[포스터 발표 8] 틱플렌 카톡, 개인적 연락엔 인스타DM	86
[포스터 발표 9] AI 의존도와 일 미루기	88
[포스터 발표 10] 강원도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건강위험 행위가 자살 관련 행위에 미치는 영향	90
[포스터 발표 11]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 사회 비교 경향,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92
[포스터 발표 12] 미혼 대학생의 가족 가치관, 가족 건강성이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93
[포스터 발표 13] 임상실습 중 탄력 압박스타킹 착용에 따른 간호학생의 하지 부종, 피로도 및 착용에 대한 만족도 ..	94
[포스터 발표 14] 인공지능 태도, 인공지능 리터러시, 성장 마인드셋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95
[포스터 발표 15] 대학생의 건강문해력, 건강신념, 자기통제 수준이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미치는 영향	96
[포스터 발표 16]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97
[포스터 발표 17]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	98
[포스터 발표 18]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 태도와 인공지능 리터러시 능력이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99
[포스터 발표 19] 성공적 노화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100



디지털기술 기반 돌봄 사례: 인공지능
욕창예방 매트리스와 스마트 방석을 활용한
와상환자 및 이동약자 케어 혁신

조기한 부대표((주) 네오에이블)

2025 보건의복지연구소 학술대회 특강

디지털기술 기반 돌봄 사례: AI 욕창예방 매트리스와 스마트 방석을 활용한 돌봄 혁신

발표자: 조기한 (네오에이블 기업부설연구소) 2025. 12. 04

발표자 소개



조기한

(주)네오에이블 부대표 / 기업부설연구소장

-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20년 연구 경력
- ❖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및 고령친화용품 개발 전문가
- ❖ AI 기반 욕창예방 시스템 및 스마트 방석 R&D 총괄

초고령사회 진입과 시장의 변화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

- 2030년 전망: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6명 중 1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 만성질환 증가: 고령화에 따른 와상 환자 및 만성질환자 급증
- 돌봄 인력난: 미국 요양시설의 81%가 인력 부족을 호소, 한국 역시 요양보호사 고령화 심각



돌봄 공백과 사회적 비용 (육창)



[이미지 출처 : 아시아 경제]

인력 의존형 돌봄의 한계

1,190만원

육창 환자 1인당 평균 추가 의료비용

- 요양보호사 1인이 다수의 환자를 케어하는 구조적 한계
- 육창 관리는 간호 인력 업무 과중의 주요 원인
- 사후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 시급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답

"데이터 수집부터 물리적 제어까지,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



욕창의 발생 메커니즘

욕창 발생의 4대 요인

- ▶ **압력 (Pressure):** 뼈 돌출 부위에 가해지는 지속적 하중
- ▶ **응전력 (Shear):** 피부와 침대 사이의 비틀림
- ▶ **마찰 (Friction):** 잦은 체위 변경 시 발생하는 쓸림
- ▶ **습기 (Moisture):** 피부 연화 및 세균 번식 환경



기존 관리 방식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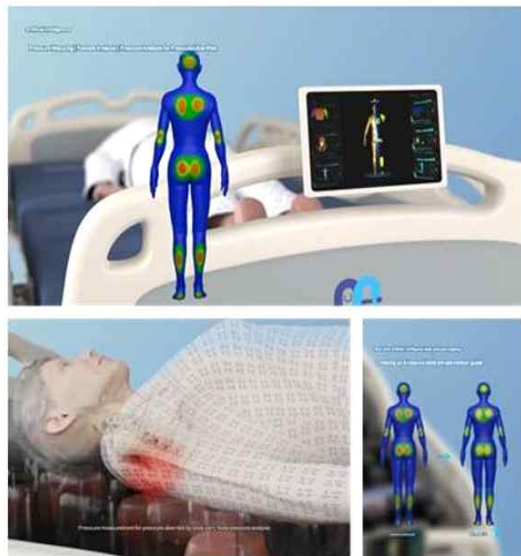
관리의 사각지대 존재

- ❖ 단순 반복: 환자 상태와 무관한 기계적 공기 순환
- ❖ 감지 불가: 환자의 자세 변화나 특정 부위 압력 집중을 파악하지 못함
- ❖ 인력 소모: 여전히 2시간마다 보호자의 수동 개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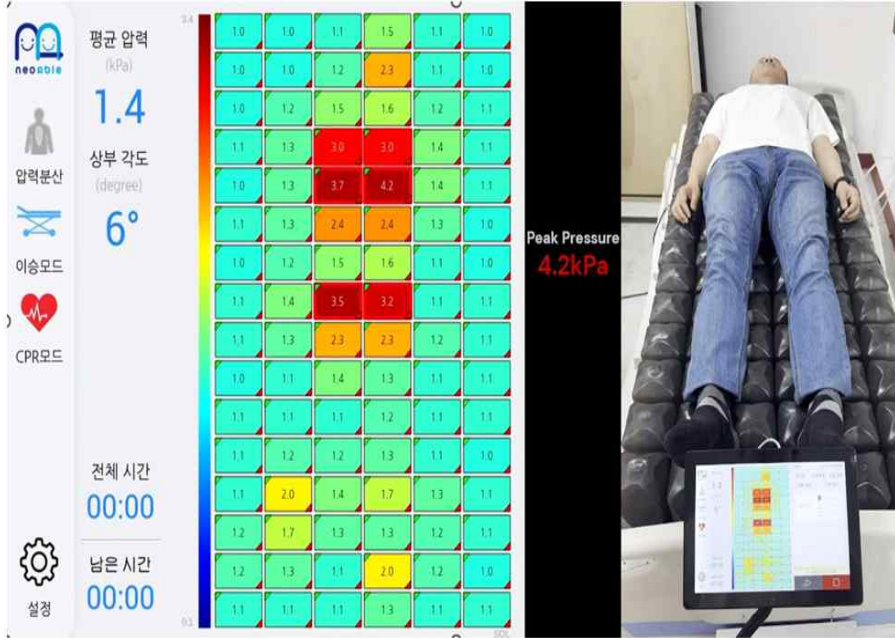
질병 예측 및 예방 중심의 접근

Smart Care System

- ❖ 예측 (Prediction):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 감지
- ❖ 예방 (Prevention): AI 시나리오에 따른 선제적 압력 분산
- ❖ 관리 (Management): 의료진에게 정량적 데이터 리포트 제공



NeOM: 인공지능 욕창예방 매트리스



"128개의 센서로 환자를 감지하고, AI가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헬스케어 솔루션 시스템 구조

연결된 돌봄 (Connected Care)

- ✓ 환자 상태 인식 (Sensing)
- ✓ On-Device AI 데이터 전송 및 분석
- ✓ AI 알고리즘의 위험도 판단
- ✓ 매트리스 제어 및 의료진 알림 발송
- ✓ 간호 테크 모니터링 및 관리 보고서 제공



하드웨어 기술: 128셀 모듈형 구조



에어 셀의 모듈화
2x2 에어 셀 모듈 설계로
사용 환경에 따라
적합한 사이즈로 조립



AIR CELL
재압 측정용 공압센서
공기량 제어 밸브 구성

풀 배열 매트리스
기본 사이즈 기준
128개의 에어 셀로
침대 전체를 커버



내장형 소프트웨어
자동 공압제어 기능모드와
공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세분석, 압력부위분석
알고리즘 탑재

정밀 제어를 위한 설계

- ④ **Full Array:** 128개의 독립 에어셀이 신체 전신을 커버
- ④ **모듈화:** 2x2 셀 모듈 구조로 유지보수 및 사이즈 확장 용이
- ④ **Dual Action:** 각 셀마다 압력 측정(Sensing)과 공기 제어 (Action) 동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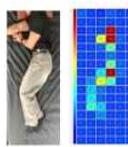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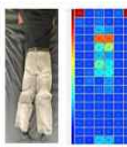
AI 기반 자세 인식 기술

보이지 않는 위험을 시각화

- ④ **체위 인식:** 양와위(뚝바로 누움), 측위(옆으로 누움) 등 자세 자동 식별
- ④ **Hot Spot 감지:** 견갑골, 천골, 발뒤꿈치 등 압력 집중 부위 포착
- ④ **실시간 히트맵:** 직관적인 컬러맵으로 환자 상태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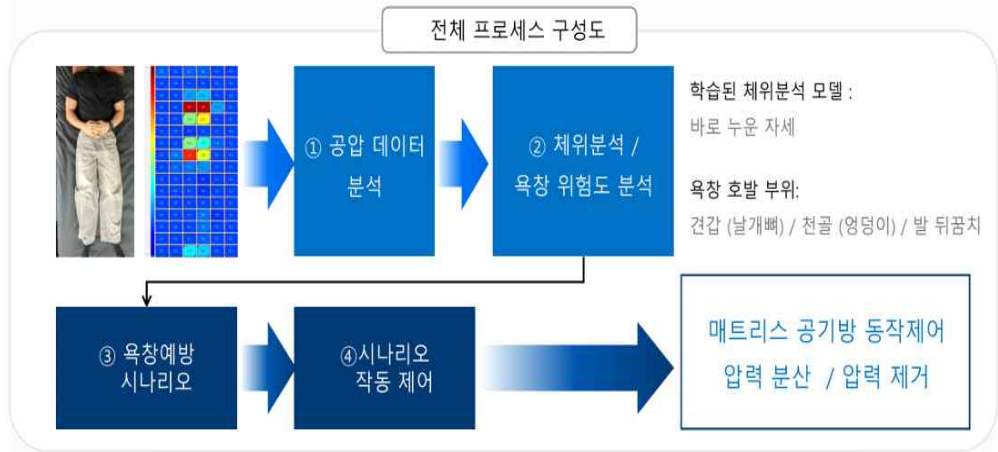


자세분석 / 압력부위분석

바로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엎드려 누운 자세
		
육장 호발 부위 • 견갑 (날개뼈) • 천골 (영덩이) • 발 뒤꿈치	육장 호발 부위 • 어깨 • 골반	육장 호발 부위 • 흉부 • 팔꿈치 • 발목

예측 및 제어 알고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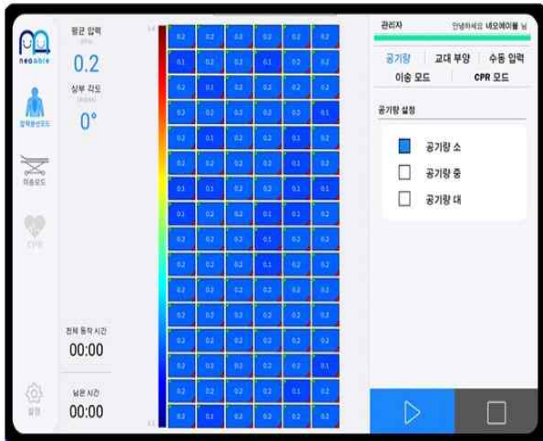
실시간 공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위 분석 및 욕창 예방 시나리오 솔루션



능동적 예방 시나리오 (Off-loading)



사용자 편의성 (UI/UX)



직관적인 제어 시스템

- Quick Action GUI: 복잡한 설정 없이 원터치로 주요 모드 실행
- 시각화: 환자의 현재 체압 상태를 디스플레이로 즉시 확인
- 접근성: 고령의 간병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 디자인

경쟁사 비교 및 차별성

	타제품	자사 솔루션
정밀 압력센싱	접촉센서·단순 ON/OFF	0.1 kPa 공압센서 매트리스 — 에어셀 별 실시간 측정
압력 분산/교대부양	고정 알고리즘	AI가 체형·질환 데이터 기반 맞춤 시나리오 생성
위험 예측 & 알람	사후 육안 확인, 별도 기록	AI가 육상 위험도 지수 산출 → 사전 알람·리포트
낙상·이탈 감지	별도 매트·카메라 필요	공압 패턴 변화로 환자 이탈·낙상 위험 즉시 감지
데이터 연동	매트 단독 사용	EMR·병동 HIS 연계, 간호 리포트 자동 기록

Key Differentiator: 단순 기계적 동작 vs 데이터 기반 AI 능동 제어

의료진 및 병원 중심 기대 효과

Total Care Solution Benefits

- ✔ 업무 부담 경감: 체위 변경 자동화로 육체 노동 감소
- ✔ 의료 판단 지원: 체압 히스토리 및 자세 데이터 제공
- ✔ 서비스 지표 향상: 욕창/낙상 사고 감소로 환자 보호자 신뢰도 상승



NeoX: 이동약자를 위한 스마트 방식



휠체어 사용자의 필수품

- ✔ **Target:** 척수 장애인, 장시간 휠체어 이용 고령자
- ✔ **Core Values:**
 - ✔ Stability (자세 안정성)
 - ✔ Circulation (공기 순환)
 - ✔ Off-loading (체압 관리)
- ✔ 둔부 욕창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 및 예방

3-Zone Intelligent Control

- ✔ 3분할구조: 좌/우/중앙 독립 제어로 골반 균형 유지
- ✔ 자세 불균형 감지: 한쪽으로 기울어짐 감지 시 경고 알림
- ✔ 자동 순환: 155분 주기로 체압을 자동 분산시키는 사이클 가동



기본모드

60% 또는 80% 공기량 조절

자동모드

3분할로 155분간 체압 자동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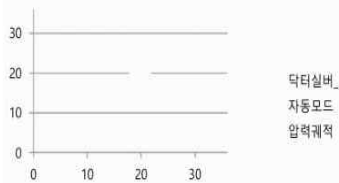
자세조정 경고

자세가 틀어져 좌우 골반부 압력차가 20% 이상 발생 시 자세조정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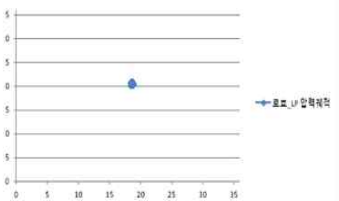
체압 분산 효과 검증

| 자동모드의 체압분산 효과 검증

▶ 닥터실버 전동방석_자동모드 압력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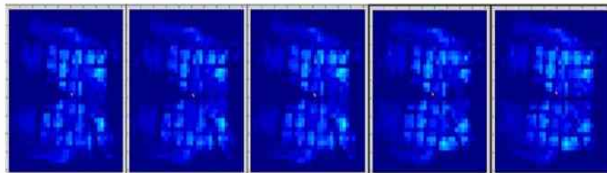
로호_LP 압력궤적



▶ COP 변화 측정으로 통한 자동모드 체압분산 효과 검증

- X-Sensor를 이용한 닥터실버 전동방석 COP(Center Of Pressure) 변화 측정
- 닥터실버 전동방석은 COP가 좌우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장시간 착석 시에도 COP가 변화하여 좌골부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음
- COP의 좌우, 상하 값 이동을 통해 체압분산 효과를 간접 확인할 수 있음

▶ 닥터실버 전동방석_자동모드 압력궤적_체압분산 효과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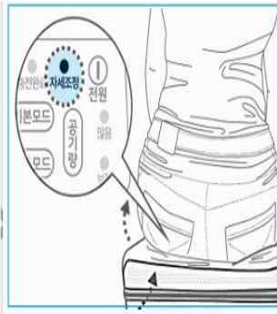


일반 방식 대비 현저히 낮은 평균 압력 및 넓은 접촉 면적 확보

실시간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간 압력모니터링
체압분산 효과



"자세 조정" LED알람으로
바른 자세 유지에 도움

능동적 재활 유도

- 진동 피드백: 장시간 부동 자세 시 진동으로 알림
- Push-up 유도: 사용자가 스스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도록 유도하여 혈액 순환 개선
- 잔존 기능 유지: 단순 의존이 아닌 사용자의 능동적 움직임 독려

통합 돌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단계별 제품 판매를 통해 매출과 제품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

01

요양시설용

AI 교대부양매트리스 형태

체압분산과 낙상방지 알림

일본 개호보험 시장 진입
국내 보장구, 복지용구 등록

02

ICU용

교대부양매트리스 H/W와
구독형 S/W의 결합

교대부양, 이송모드, CPR모드 지원
환자 관리 데이터 보고서 제공

국내, 해외 ICU 병원 납품

03

가정용

부분형 교대부양매트리스

편안한 수면 유도를 위한
교대부양 기능

글로벌 슬립테크, 헬스케어 시장

해외 사례: 일본의 돌봄로봇 정책

정책적 지원

- 경제산업성 & 후생노동성 협력: 로봇 기술 개발과 현장 보급을 동시에 지원
- 중점 분야 선정: 이송, 이동, 배설, 치매, 입욕 등 5대 분야 집중 육성
- 보조금 지원: 요양 시설의 로봇 도입 시 비용 지원

스마트 간호사 제도

- 전문 인력 양성: 기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교육
- 역할: 시설 내 기기 도입 기획, 운용, 효과 분석 주도
- 시사점: 기술 공급뿐만 아니라 운용 역량 강화가 필수적

스마트 간호(Smart Care)의 핵심



기술과 사람의 융합

단순히 로봇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케어 플랜을 최적화하고, 돌봄 인력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프로세스 혁신'이 핵심입니다.

- 데이터 기반 케어 (Evidence-based Care)
- 업무 워크플로우 개선
- 환자와 간병인의 삶의 질 동반 상승

글로벌 진출 전략 (일본 시장)



일본 개호시장 진입

- ▶ 파트너십: 닛신메디컬그룹, 고베국제의료재단과 공동 개발 및 실증
- ▶ 시장 규모: 약 3조원 규모의 복지용구 시장 공략
- ▶ 전략: 현지 병원 실증을 통한 신뢰도 확보 후 보험 급여 진입

일본 현지 실증 사례 및 성과

닛신병원(Nissin Hospital) 실증

- ▶ 대상: 실제 와상 환자 및 의료진
- ▶ 검증: NeoM 매트리스의 임상적 유효성 및 사용성 평가 (FGI)
- ▶ 성과:
 - ▶ 환자 수면 만족도 대폭 상승
 - ▶ 50억 원 규모 수출 계약 체결
 - ▶ 까다로운 일본 의료 현장 품질 기준 충족



향후 로드맵 (Roadmap)

AI 스마트 매트리스 출시 및 수출

'25 하반기까지 인증시험을 마치고
'26년 상반기 출시 및 양산

해외 시장 확대

일본 매트리스-센서 모듈 공급
(Paramount Bed 협력 추진)
환자 안전감지 및 병상 모니터링 플랫폼 출시

장기 비전

매트리스-침대 통합 다자원 자세변환 로봇 확장
데이터 기반 예방-중재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화
국내 신의료기술 선정

'25~

~'26

'26 ~ '27

'28

임상 데이터 수집

"해외-국내 임상, 실증사업" 진행
▶ 병원 현장 데이터 축적 통한
AI 모델 소프트웨어 기능 고도화

국내 안정적 매출

국내 혁신의료기술 선정

기술 기반 돌봄의 사회적 가치



Creating Shared Value

- ▶ 환자: 육창 없는 존엄한 노후, 수면 질 향상
- ▶ 보호자/의료진: 육체적 돌봄 노동 해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 ▶ 사회/국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 돌봄 인력난 해소

제언 및 결론

"데이터 기반의 정밀 예방 돌봄"

경험에 의존하던 아날로그 돌봄에서, 데이터로 예측하는 디지털 돌봄으로의 전환

Ecosystem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통합 돌봄 생태계 조성

Education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전문 인력 양성 (교육)

Policy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공공적 확산 지원 (급여화)

Thank You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술을 연구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사회복지가 만나다: 복지관의
실천 사례 중심**

윤수진 팀장(밤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디지털기술과 사회복지가 만나다

: 복지관 실천사례 중심

- 윤수진 팀장 -



2025.12.04.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15년차 Social Worker



복지기획팀



사람중심의 사회복지



변화와 시도



장애인,노인,사회복지관





BABSANG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주요사업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기 실태조사 / 기후 취약계층 발굴 / 다양한 에너지원 지원
도시가스 채납세대 상담, 발굴



스마트돌봄의 확대

ICT돌봄 기기 효율이, 보듬이 / 태블릿 인티프로그램 / AI 운동처방 기기 등
디지털 학교 - AI 교육, 신기술 교육 등

마을공동체의 회복, 형성

비타민 목욕탕 / 연탄은행의 시작 원주 / 원인동 마을관리소
마을 축제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체계 강화

민+관+학 협력 사업 추진 / 스마트복지협의체 조직 / 사회적처방 MOU

연탄은행

밥과 연탄

대한민국을 품는다.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Babsang Community Social Welfare Center

개관일 2013. 7. 1.

MISSION

나눔과 소통으로 **연대**하고
생명존중 및 생태복지를 **실천**하며,
성장과 변화를 **선도**하는 지역사회복지관입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변화하고, 지원하는 복지관



주요사업 우리는 4대 돌봄으로 사람과 자연, 마을과 미래가 함께 살아가는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p>이웃돌봄</p> <p>사회적약자의 일상회복, 삶의질 향상</p> <p>무료급식, 도시락 지원 사례관리, 위기가구 지원 노인맞춤돌봄</p>	<p>마을돌봄</p> <p>주민참여형 복지, 공동체회복 커뮤니티구축</p> <p>원인동마을관리소 가치돌봄(통합돌봄) BS방송국(미디어복지) 마을축제(명절, 영화제)</p>	<p>지구돌봄</p> <p>기후위기대응, 에너지복지 생태전환실천</p> <p>기후위기 지원 기관, 에너지 종합지원, 환경 프로그램 (옷수선, 주거환경개선 등)</p>	<p>스마트돌봄</p> <p>스마트 사회적처방, ICT 돌봄, AI기반 건강관리</p> <p>스마트 사회적처방사업 ICT돌봄 (보듬이, 효돌이) 디지털학교 (AI 수업) 디지털배움터</p>
--	--	---	--

ESG 실천 전략

<p>E 생태복지실천 Environmental</p> <p>기후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만들어 갑니다</p>	<p>S 사회적 책임 Social</p> <p>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p>	<p>G 민주적 투명 지배구조 Governance</p> <p>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합니다</p>
--	--	--

복지관이 실천하는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MART WELFARE)

스마트복지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

스마트복지

ICT돌봄 효돌이, 보듬이 활용 돌봄 디지털배움터 교육 디지털체험존 태블릿인지활동 키오스크 메타버스 Real P.T

스마트워크

전자결재시스템(전자결재/사례관리) 복지맵 키오스크(이용자관리)

미디어복지

BS영상센터 미디어교육 유튜브아카이빙 어르신아나운서 BS생방송뉴스 굿모닝밥상 밥퀴즈 슛츠

방송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우리 기관의 강점

지역사회문제에 디지털기기를 활용 : 스마트복지 선도

- 2020년 코로나 확산 이후 빠르게 ICT돌봄 기기 효돌, 보듬이를 보급하며, 돌봄이 필요한 1인 노인가구의 안전확인 및 환경데이터 수집으로 노인고립의 사각지대 문제를 파악, 해결하고, 기후위기 지원으로 연계 사업을 확장
- 복지관은 사업을 실행하며, 효과성을 연구, 지역사회문제와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디지털기술 및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원개발하여 파일럿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스마트복지사업을 유지.
- 복지행정 시스템 스마트워크환경 구축을 위해 복지맵 개발, 문서 전체를 전자결재, 실천 현장에서 모바일화
- 관장, 법인 이사의 방향성 일치
- 스마트복지 사업은 실천 경험과 성공의 경험으로 스마트복지가 준비된 기관. >> 테스트베드

38년생 병원이가 스마트하게 사는 법 with.노인맞춤돌봄



(since 2020)

소셜로봇-효돌이



지원대상

재가 중 우울 점수가 높거나, 치매 고위험군 속하는 1인 가구 어르신

사람과 만나다

귀가 인사, 약복용 알람, 움직임 감지 기능, 다양한 콘텐츠(노래, 건강체조 등) 가족, 친구 등의 대상으로 의미부여, 원거리 비대면 돌봄 가능

사례

효돌 실천사례연구 결과, 삶의 질 점수 향상, 우울점수 감소 확인
약 먹기, 규칙적 생활하기, 긍정적 사고하기 변화율이 증명됨



효돌 모니터링 시스템

원주 밤상공동체종합복지관

기관명	원주 밤상공동체종합복지관	기관 코드	454213004001	통계/리포트			
여자	53 명	남자	10 명	평균연령	80.6 세	연령범위	63-98 세
전체	63	감지중	59	연락필요	0	연결끊김	3 (~7일)
						연결끊김	1 (8일 ~ 30일 미만)
						연결끊김	0 (30일 이상)



(since 2021)

보듬이



지원대상

재가 중인 돌봄, 안전확인이 필요한 1인 어르신 가구

사람과 만나다

리모컨 크기로 쉽게 벽에 부착.
움직임, 온도, 습도, 조도, Co2 환경 데이터 수집

사례

'위험 24시간' 주무관과 가정방문하여 사망 확인-> 고독사 방지
'경고 12시간' 생활지원사 1순위 가정방문 -> 119신고하여 응급 이송
실내 온도 겨울철 10도 이하, 에너지 지원 연계 -> 난방 지원



점검
통신장애
전원분리
입원, 여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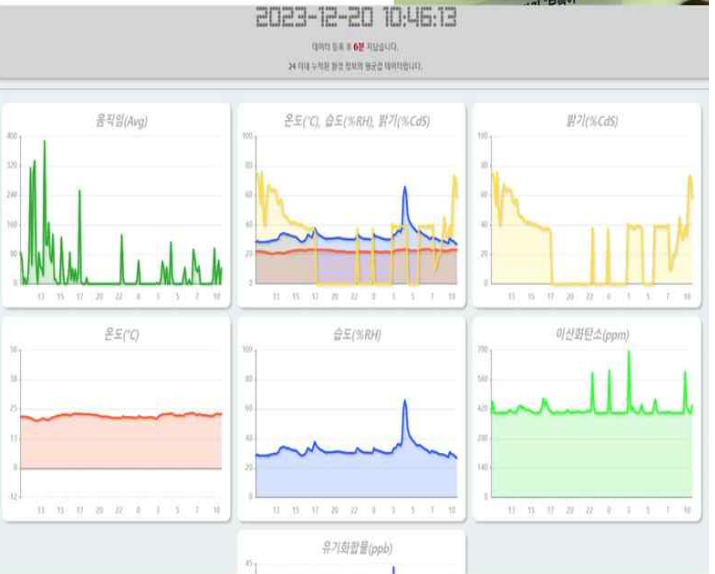


Sensor Monitoring Devices [MEMBER-MOBILE-VIEWER v.6.51]

강원도 원주시 [00020]

전체 9	정상 9	주의 0
경보 0	위험 0	점검 0

장비 ID	최종 움직임	경과	상태
WJ0071	2023-12-20 10:41	8분	정상
WJ0072	2023-12-20 10:36	14분	정상
WJ0073	2023-12-20 10:41	9분	정상
WJ0074	2023-12-20 10:42	8분	정상
WJ0075	2023-12-20 08:58	1시간	정상
WJ0077	2023-12-20 10:41	9분	정상
WJ0078	2023-12-20 10:40	10분	정상
WJ0079	2023-12-20 10:43	7분	정상
WJ0290	2023-12-20 10:45	4분	정상



스마트복지 서비스

디지털공작소

- AI 음악, 미술, 그림책
- 발표회
- 신중년 대상 (경제력, 은퇴 후 여유시간, 스마트폰교육 보다는 레벨업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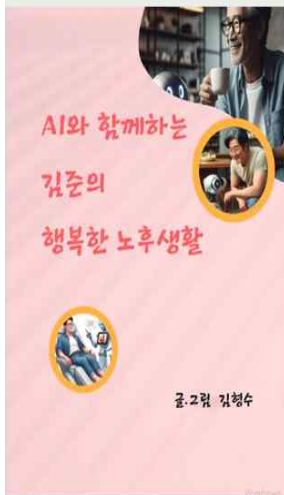


디지털학교

- 신중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진행,
- 지역주민의 디지털 역량강화
- AI자격증
- 강사양성교육
- 프로그래밍 교육 등



방송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은퇴 후, 새로운 시작 (AI 도전기)

김준, 김혜수



AI로 그리는 꿈

김그림 권태숙



우주 요양원 탈출 소동

김그림 정혜경



혜순의 새로운 도전시

갈릴로의 뜻은 마음에 혜순이 살고 있었어요. 혜순은 나이 죽음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혜순은 텔레비전에서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AI라는 것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혜순은 귀를 쫑긋 기울였어요. "사회 불타시오 현인 배워올까요?" 오늘날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자, 시를 배우는 거야!" 그렇게 혜순의 신나는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스마트복지 서비스

키오스크

-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출결 관리
-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시 출석체크
- 시설안내, 서비스 안내 기능



요터치 테이블

- 원주시 지원
- 인지기능향상 게임
- 여러명이 동시에 활용 가능



법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출결 키오스크



스마트복지 서비스

태블릿 인지활동

- 로완 '슈퍼브레인' 프로그램
- 주 2회 10명 대상, 태블릿 수업
- 기억력, 집중력, 시공간, 계산력, 운동



메타버스 .ZEP

- 지역의 대학성과 10회기 프로젝트
- 복지관을 가상의 공간으로 구성
- 행사 이벤트 활용 중



밤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스마트복지 서비스

디지털체험존

- 디지털배움터 사업 연계
- 교육용 키오스크, VR인지활동, 파이보로봇
-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두려움 낮아져



디지털배움터 교육

- 디지털배움터 연계하여 여러 사업 운영
- 스마트폰 기초교육, 시니어강사 양성교육
- 디지털신기술 체험 교육 등
- 교육 이수 후, 어르신 디지털 도우미 창구 일자리 연계



밤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스마트복지 서비스

스마트존

- 로비에 위치, 이용자가 자유롭게 정보 탐색
- 강사 일지 작성 공간
- 사회복지사 수시 활용



스마트경로당

- 원주시 정보통신과 지원사업
- 주 2회 어르신 10명 대상
- 원주시내 경로당 복지관 40곳
- 비대면 화상 교육 (웃음치료, 댄스, 노래, 게임 등)



밤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ABOUT US)

스마트헬스케어

Real P.T

모션인식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운동처방

자세, 체력 검사
실시간 코칭 프로그램 활용

주 1회 40명 어르신 운영
근력 사전, 사후 비교



밤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ABOUT US)

스마트헬스케어

헬스케어 키오스크

원주시 정보통신과 지원사업

비터치 방식/안면 인식으로
맥박, 혈압, 체온 측정

매일 측정하여
건강 이상이 있을 경우
방문 진료 연계 및 안내



건강자문·돌봄사각 발굴 '척척' 원주 경로당 더 똑똑해졌다

▲ 김효서 | © 연합뉴스 2023.12.13 | 19:09 | 99글 0

- 원주 경로당 40곳 화상장비 구축
- 자기주도 건강관리 기반 마련
- 400여명 열람형태 데이터 제공
- 수집된 데이터 건강자문 서비스
- 노인 21명 대상 이상징후 발견
- 복지관·의료기관 연계 관리 추진
- 틀림·일자리 등 모니터링 가능
- 건강측정 장비 지속운영 다짐
- 스마트 경로당 사회복지 전환점
- 기초자료 확보 사군 확대 기대

강원테크노파크(이하 강원T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고 원주시와 강원TP가 수행하는 '스마트 별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원주시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을 통해 원주지역 경로당(복지관) 40곳에 비대면 화상교육 장비와 자기 주도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건강측정 장비를 구축했다.

N 네이버는 강!

많이 본 기사

- 1 원주 18층 아파트 각... "출입 금지"
- 2 설악산 실종 산악... 차이로 승진세 발
- 3 순천 주력 2층 원... 대 승진 세 발견
- 4 박순미 강원도의... 민국 환경 ESG공
- 5 강주원 이대강

법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ABOUT US)

화상전화기



법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미디어복지 (MEDIA + WELFARE)

BS청춘방송국

- 2016년도 'BS청춘라디오'로 시작
- 2022년도 'BS'청춘방송국'으로 영상센터 open
- 미디어 장비 활용, 교육, 방송 진행 중
- 유튜브 아카이빙 기능
- 지역 대학 한라대 미디어과 협약



미디어 교육

- 영상편집 기술, 촬영 기술
- 크리에이터 되기 교육
- 신중년 프로그램 기획 중



방송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미디어복지 (MEDIA + WELFARE)



방송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미디어복지 (MEDIA + WELFARE)

BS생방송뉴스

- 어르신이 아나운서가 되어 복지관 소식 방송
- 2주에 한번 유튜브로 생방송 송출



굿모닝밥상 (보이는라디오)

- 어르신이 1일 DJ
- 나의 삶 이야기, 유익한 정보 등 대본작성하여 생방송으로 방송

버킷리스트



밤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스마트워크 구축



- 01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 종이문서 최소화
 - 행정문서 간소화
 - 빠른 서비스 개입
 - 재택 근무 가능
 - 실적 관리,
- 02 현장에서 입력**
 - 사례관리 상담 현장에서 기록
 - 초기상담, 척도 검사, 현장에서 바로 입력
 - 개인정보동의 전자서명
- 03 복지맵**
 - 서비스 대상, 자원 지도 확인
 - 로드뷰 연동
 - 서비스 제공 방문 순서, 중복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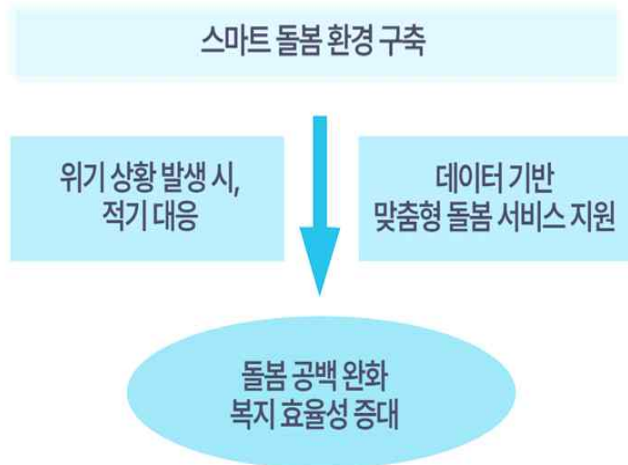
밤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모바일



복지관의 스마트복지 현황 및 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법성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2023 스마트복지 현황 및 방향에 관한 연구-제언

사람중심 스마트복지 실천

복지관 종사자 및 생활지원사 중심 스마트복지

1. 업무과부하 등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
2. 동기부여, 기술 이해, 활용방법,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
3. 이용자 특성에 따른 적정기술 파악,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4.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과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스마트복지 이해와 확산
5. 이용자 욕구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술 발굴 및 도입

서비스 이용자 중심 스마트 복지

1. 이용자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함
2. 기기 사용 불편함, 기능 변경, 수리, 서비스 개선 등 요구 창구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
3. 개인정보보호 등 스마트복지 관련 윤리적 이슈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당사자 교육
4. 이용자 특성과 욕구 중심, 일상생활 중심, 삶의 질 중심 스마트복지 기술 발굴 및 적용

부산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2023 스마트복지 현황 및 방향에 관한 연구-제언

스마트복지 체계 구축

1. 스마트복지 실천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한계에 대한 관심 및 수시 보고, 대응 체계 구축
2. 스마트복지(기술) 목적, 이용 대상, 활용 방법, 주기, 장비 관리, 발생가능한 문제와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구축
3. 스마트복지 영향 평가 체계를 구축 및 주기적 평가와 피드백 체계 마련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성과 평가)
4. 스마트복지에 관한 윤리적 기준 마련(스마트복지 기술 선택 및 활용, 스마트복지 서비스 제공,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부정적 영향 등에 관한 윤리적 기준 필요)

부산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스마트복지 시대를 열다' 6.29 심포지엄 개최



스마트복지 연구사업 발표
-건국대학교 신준섭 교수



독거어르신 반려로봇과 해외동향
-노스캐롤라이나학교 오틸리아교수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사회복지관의 대응 방향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

| 스마트사회적처방

○ 외로움과 사회적고립, 사회적 처방이 답이다



복지관
스마트
사회적처방
추진 결정

우리나라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이후, 2023년 33%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19년 27.7%)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진표 교수- KBS 시사기획창 방송 인터뷰 중 2024.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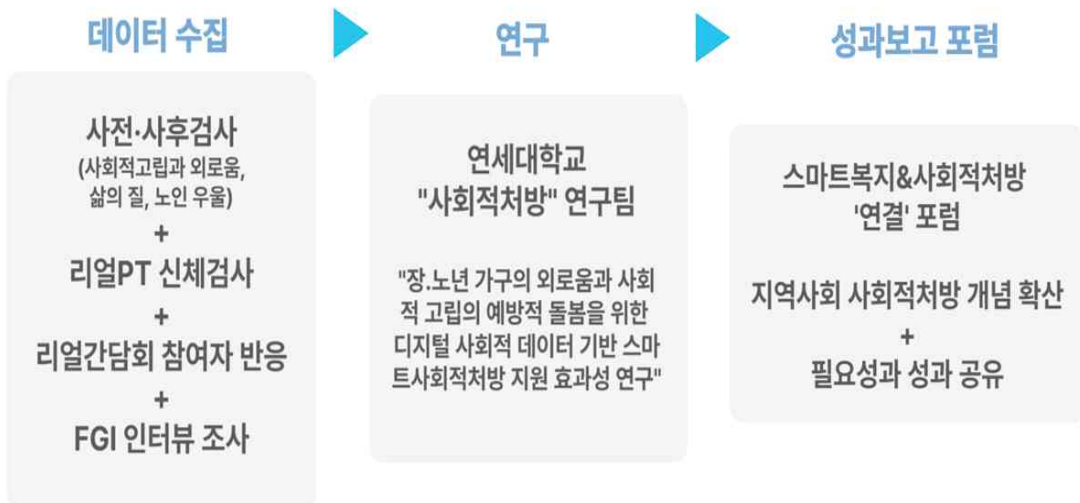
고립되거나 외로움이 심한 분들 경우는 건강관리를 안 하고, 진단을 받아도 약이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의료비용이 만만치 않게 되고, 중증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비용도 커져서 사회적 부담을 많이 준다고 보여진다.

| 스마트사회적처방 사업 체계도



법 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 스마트사회적처방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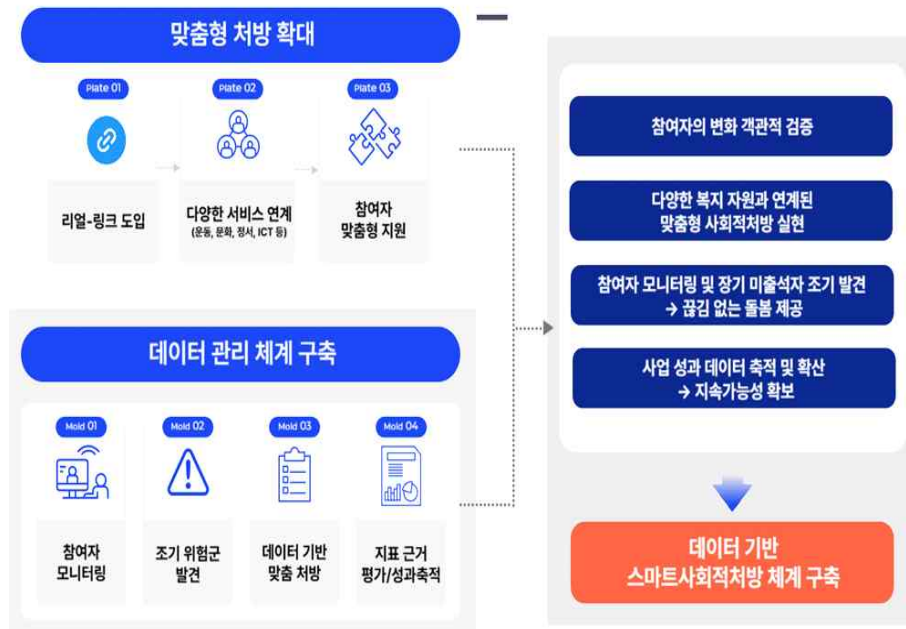
| 스마트복지+ 사회적처방 '연결' 포럼

- 스마트사회적처방 1차년도 성과보고
- 효과성 연구 발표
- 스마트복지와 사회적처방 발전 방향 주제발제
- 패널토론
- 지역 내 다양한 기관·단체와
- 스마트복지와 사회적처방의 기반을 다지고
- 지속가능한 돌봄 모델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



(ABOUT US)

AI와 사회복지



2024-2025 스마트복지협의체

민+관+학 협력체계



밤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감사합니다!

CONTACT

www.bsbokji.or.kr

E-MAIL

bsbokji@naver.com

ADDRESS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 81-2



**통합돌봄 실행전략-휴먼 디지털 플랫폼과
지역 보건의료 자원 연계**

김영민 대표(바야다홈헬스케어)

통합 돌봄 실행전략:

휴먼디지털 플랫폼과
지역보건의료 자원 연계



김영민 Youngmin Kimmy Kim
바야다홈헬스케어 아태지역 대표
대한재택의료학회 재무이사

지역기반 보건·의료·돌봄 용어 정의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용어	정의(핵심)	제공 주체	포함 서비스	의료행위 여부
지역사회 보건의료	보건소 중심의 예방·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지자체	예방접종, 방문건강, 감염병, 모자보건, 치매관리	△ (일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지역 단위 의료·요양·복지·주거 통합돌봄	지자체·보건소·요양·복지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거·생활지원, 케어 조정	△ (의료 일부 포함)
재택의료(Home Medical Care)	의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진료·처치 제공	의사·간호사	방문진료, 약물관리, 상처·육창관리, 모니터링	✓
가정간호(Home Nursing)	간호사가 방문해 간호행위 제공	간호사	상처·육창 관리, 투약지도, 회복기 간호	✓ (간호 범위)
홈헬스케어(Home Healthcare)	집에서 제공되는 의료+간호+재활+일상지원 전체	간호사·재활치료사·돌봄제공자전체	방문간호, 재활, 모니터링, 일상지원	✓/△ (포괄)
방문요양(Home Care)	일상생활 도움 중심의 비의료적 돌봄 서비스	요양보호사	목욕, 이동·식사 도움, 청결관리	X
재가서비스(HCBS)	시설이 아닌 집·지역 기반 돌봄 전체	요양·복지·간호 혼합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전화·화상 기반 비대면 진단·상담	의사·의료기관	상담, 모니터링, 약 처방	✓

전세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역사



WE LOVE WHAT WE DO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연도	핵심 변화(키워드)	주요 국가 혹은 기관
1) 19세기 말-20세기 초근대 공중보건 출발	- 위생혁명·감염병 대응 - 방문간호 시작 - 보건소 개념 탄생	영국 중심, 유럽
2) 1940-1960s 보편의료·일차의료 기반 형성	- NHS 등장(1차 의료 중심) - 지역 보건센터 확산 - 예방·모자보건 강화	영국 NHS, 북유럽 보건국 WHO 초기 기술지원팀
3) 1978 알마아타 선언 Primary Health Care 탄생	- PHC 공식화 - 주민참여·예방·지역기반 원칙 전 세계 확산	WHO + UNICEF, 국제협력기구(UNDP 등)
4) 1980-1990s 커뮤니티 케어·홈케어 제도 확립	- 홈헬프·방문간호 국가제도화 - 지역 돌봄(Community Care) 등장 - 만성질환·노인관리 확대	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 정부, 미국 Community Health Centers
5) 2000s 장기요양보험·재택케어 급여화	- 고령화 본격화 재택·지역 돌봄을 보험에 포함 - 국가 단위 장기요양(LTC) 확립	일본, 독일, 북유럽
6) 2010s 통합돌봄·지역케어·1차의료 강화	- 의료·요양·복지·주거 통합 - 지역 건강 네트워크 구축과 만성질환 관리	일본, 미국, 영국
7) 2020s 코로나 이후 지역·원격·재택케어 확장	- Telehealth 포함 재택의료·모니터링 가속화 - 커뮤니티 헬스 워커(CHW) 역할 강화	미국, 일본, 유럽

통합돌봄법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



WE LOVE WHAT WE DO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조항 번호	주요 내용(키워드)	해외 참조 국가
제1조 (목적)	살던 곳에서 돌봄, 의료·요양·복지·주거 통합	일본 지역포괄케어
제3조 (정의)	통합돌봄·케어코디네이션·사례관리 정의	영국 커뮤니티케어
제4조 (국가·지자체 책무)	지역책임 운영, 통합계획	일본 시정촌 운영
제7조 (기본계획)	국가 5년 계획, 지자체 시행계획	EU 지역건강계획
제10조 (대상자)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 취약계층	영국 NHS 고위험군
제13조 (서비스)	방문요양·방문간호·재택의료·주거·생활지원	일본(의료·개호·예방·주거·생활지원)
제15조 (제공체계)	지역 네트워크, 기관 연계	네덜란드 Buurtzorg
제18조 (케어코디네이터)	케어매니저 배치, 통합사례관리	일본 케어매니저 제도
제20조 (사례관리)	개인별 케어플랜, 조정·평가	영국 Case Manager
제23조 (지역케어회의)	관계기관 협의체	일본 지역케어회의
제27조 (재원)	건보·장기요양·지자체 재정 연계	독일 LTCI 모델
제30조 (정보연계)	의료·요양·복지 데이터 연계	EU EHDS 데이터표준
제33조 (성과평가)	지자체 성과평가, 환류	영국 CQC 평가
제35조 (국가 지원)	지자체 행정·재정 지원	일본 국고 보조 구조

통합돌봄법 참조 국가



WE LOVE WHAT WE DO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참조 국가	참고 비중(%)	한국 통합돌봄법에서 차용된 주요 요소
일본	50%	지역포괄케어 5요소(의료·개호·예방·생활지원·주거), 시정촌 책임제, 케어매니저 모델, 장기요양-의료 연계 구조
영국(UK)	20%	NHS 커뮤니티케어 구조, 사회돌봄(Social Care) 연계, 케이스매니지먼트, 지역케어 네트워크(ICS)
독일	15%	장기요양보험(LTCI) 재정 구조, 지역 기반 재가서비스 품질관리(Pflege), 가족·커뮤니티 돌봄 조합모델
네덜란드	10%	Buurtzorg 자율간호팀 운영 방식, 지역 단위 통합 간호·돌봄, 방문케어 중심 구조
북유럽(스웨덴·덴마크)	5%	홈헬프(Home Help) 모델, 지방정부 중심 돌봄 책임제, 재가 중심 LTC 전략

국가별 법제화부터 시행까지 준비 기간



WE LOVE WHAT WE DO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국가	모델명 / 제도	법제화 또는 정책 출발점	본격 시행·정책 시기	준비기간 (법 → 시행)	특징 요약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 공적 개호보험(LTCI)	2000년: 개호보험 제도화	2025년: 지역포괄케어 전국 완성 목표	약 25년	장기 계획에 따라 지역·재택케어를 전국적으로 단계 구축
네덜란드 (홀랜드)	Buurtzorg(자율간호팀 기반 지역케어 모델)	2006년: Buurtzorg 시작	2015~2016년: 전국 확산, 주요 제도 포함	약 10년	민간 혁신모델이 빠르게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은 사례
미국	재택·원격 기반 커뮤니티케어: Home Health, Chronic Care Management(CCM), Remote Monitoring(RPM)	1965년: Medicare 도입 → Home Health 포함 2000~2010년대: CCM·ACOs·PHC 강화	2018~2020년: RPM·R TM 급여화 → 코로나 이후 전국 확산	약 20~50년 (단계적 제도화)	오래된 제도 기반 + 최신 디지털 헬스 정책이 결합된 복합 모델
독일	장기요양보험(LTCI) + 지역사회 기반 장기케어(SGB XI)	1995년: LTCI (사회법전 XI) 시행	2008~2017년: 3단계 개혁(Pflegestärkungsgesetz) 완료	약 20년	법·재정·자가부담 구조가 안정되기까지 장기적 개혁 소요

한국vs일본 지역보건의료 비교(1)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구분	한국	일본	한국과 일본의 핵심 차이점
2000~2005	2000~: 장기요양보험 논의 시작 2004~: 방문보건 확대	2000: 공적 개호보험(LTCI) 도입 → 재택·지역케어 급여화 시작	일본은 재택·지역케어가 국가 급여로 출발, 한국은 준비 단계
2006~2010	2007: 장기요양보험 법 제정 2008: 장기요양보험 시행	2006: 지역포괄지원센터 설립 법제화(케어매니저 제도 포함)	일본은 지역케어 코디네이션 조직을 국가가 법으로 구축
2011~2015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확대	재택의료·방문간호·방문재활 전국 확대	일본은 재택진료·방문재활까지 국가 표준, 한국은 일부 시범
2016~2018	2018: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작	지역포괄케어 전국 표준화 단계	한국은 "시범 시작", 일본은 "전국 정착 단계"
2019~2021	만성질환관리 시범, 재택의료 시범, 비대면진료(한시·시범)	재택의료 24시간·야간 포함 완성 단계	일본은 재택의료 = 국가 표준 진료 방식, 한국은 시작 단계
2022~2023	재택의료·비대면·통합돌봄 시범 유지	2025년 목표로 조직·예산·인력 완성 중	일본은 국가 로드맵, 한국은 시범·확대 여부 미정
2024~2025	대부분 여전히 시범사업, 지역 편차 큼	2025년 지역포괄케어 전국 완성	일본은 25년간 지속적 정책 일관성, 한국은 단기 시범 반복

한국vs일본 지역보건의료 비교(2)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한국 (연도 흐름 + 특징)	일본 (연도 흐름 + 특징)	한국과 일본의 핵심 차이점
재원 구조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지자체 예산 (분리)	건강보험 + 개호보험 완전 연계	일본은 예산·보험체계가 통합, 한국은 분절
서비스 범위	방문진료(시범), 재택의료(시범), 비대면(시범), 재택호스피스(시범)	방문간호·방문재활·재택진료·주야간보호·단기입소 모두 급여화	일본은 "재택 서비스 대부분이 급여화된 완전 제도화"
케어 코디네이션	보건소·지자체 사례관리 (역할 미정·시범)	지역포괄지원센터 + 케어매니저 전국 제도화	일본은 코디네이션이 명확한 직군 + 법적 역할, 한국은 불명확
통합 구조	의료·요양·복지 연계 부분적·시범적	주거·개호·의료·예방·생활지원 5 요소 완전 통합 시스템	일본은 지역 단위 통합이 "법적 구조", 한국은 "지자체 추진"
커버리지	지역·지자체 편차 큼	전국 동일 기준, 보편 서비스	한국은 지역 간 격차, 일본은 전국 표준화
전체 평가	"서비스는 있으나 제도화되지 않음, 시범 중심"	"완성형 지역·재택의료 시스템, 20년 축적"	본질적 차이는: 제도화/일관성/전국 단위 조직 구축 여부

“복·붙” 안되는 지역사회보건의료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구분	한국 특성	일본 특성	한국 즉각 적용 불가능 요인
정치적 요인	정책 변동성 큼, 중앙집권, 지방재정 격차	25년 일관 정책, 시정촌 중심, 안정적 정책 지속성	장기정책 부재, 지방정부 역량 편차
경제적 요인	재원 분절(건보·LTC·지자체), 돌봄 인력 부족	건강보험·개호보험 연계, 안정적 케어 인력	재정 통합 어려움, 인력 공급 불안정
사회·문화적 요인	초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20년), 가족돌봄 붕괴	점진적 고령화(40년) 준비 기반, 가족+지역 돌봄 유지	변화 속도 차이, 가족돌봄 기반 불안정
의료·요양 서비스 구조	병원 중심, 일차의료 약함, 의료·요양 분절	동네의원-재택의료-개호 연속성, 통합운영	서비스 연속성 부족, 제도 성숙도 차이
지역사회 역량	지자체 간 차이 큼, 조직·인력 표준화 부족	전국 시정촌 동일 구조, 케어매니저 표준화	표준 모델 부재, 지자체 역량 격차
노동시장·인력 공급	간호·요양 인력 부족, 고노동강도	방문간호·재택케어 인력 풍부, 외국인 인력 준비 및 수용/적용	인력풀 부족, 돌봄 노동시장 취약
정보·데이터 구조	보건-의료-요양 데이터 분절, 연계 초기	의료·개호 데이터 장기 통합, 지역케어 데이터 풍부	정보연계 미흡, 데이터 기반 약함
지역 조직·NPO 기반	지역사회 참여 낮음, NPO 역할 제한	지역 NPO·자원봉사 강함, 지역 네트워크 탄탄	주민참여 기반 약함, 커뮤니티 약함

한국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구분	주요 제공 주체	세부 서비스 종류
공공보건(보건소)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방문건강관리, 예방접종, 지역사회 건강조사, 감염병 관리, 결핵관리, 모자보건, 영유아·임산부 관리, 구강보건,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차의료(의원 중심)	동네의원, 가정의학과, 지역의료기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고혈압·당뇨), 방문진료(왕진), 가정간호, 재택의료 시범사업
장기요양·돌봄(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장기요양 케어플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지자체, 지역 케어안심센터, 복지기관	의료·요양·복지·주거 통합서비스, 케어코디네이션, 재택 케어 제공
정신건강·중독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례관리, 중증 정신질환 지역관리,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센터(알코올·도박·약물)
취약계층 건강관리	보건소, 지자체, 커뮤니티케어팀	장애인 건강주치의, 희귀질환 지원, 돌봄SOS 서비스, 독거노인·저소득층 건강지원
재택·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관, 보건소, ICT 플랫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재택 모니터링(웨어러블·IoT), 재택호스피스, 원격상담
병원-지역 연계 서비스	병원·보건소·의원·요양기관 협력	퇴원환자 연계(D-Care), 지역케어 네트워크, 만성질환 지역 공동관리

한국 지역사회보건의료 변화_2000~2020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연도	주요 정책/변화	의미·영향	정책 키워드
2000	국민건강보험 단일보험자 체계 통합	직장·지역 보험 통합 → 보편적 건강보장 기반	보편적 건강보장, 보험 통합
2005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초고령사회 대비 돌봄 제도화 준비	초고령사회 대응, 장기요양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공적 장기요양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제도 법제화, 공적 돌봄
2008.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사회보험 기반 장기요양 서비스 시작	LTCI 도입, 사회보험
2013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발표	공급 확대·품질관리 제도화	품질관리, 기본계획
2014.7	장기요양 수급자 경증 치매까지 확대	치매 조기관리·서비스 접근성 강화	치매 관리, 접근성 확대
2015	보건의료 빅데이터·U-Health 논의	IC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확산 시도	디지털 헬스, 빅데이터
2017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치매안심센터 설치, 국가 관리체계 구축	치매 국가책임제, 공공돌봄
2018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로드맵	시설 → 재가·지역 중심 돌봄 전환	커뮤니티 케어, 지역기반
2019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주도 보건·복지·돌봄 연계 실험	지자체 중심, 통합서비스
2020	코로나19 팬데믹 대응(K-방역 모델)	IT 기반 방역·자가격리 앱·드라이브스루 등 국제 모범	K-방역, 감염병 대응, 디지털 추적
2020 (한시)	원격진료 한시 허용	비대면 진료 경험 확산, 제도화 논의 촉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

한국 지역사회보건의료 변화_2001~2025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연도	주요 정책/변화	의미·영향	정책 키워드
2021~2022	4차 국가치매계획,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논의	예방·조기진단 강화, 재정개혁 필요성	지속가능성, 예방 중심
2023	디지털플랫폼 정부 전략 연계	보건·의료 데이터 통합, 마이헬스 데이터 활용	의료 데이터, 마이데이터
2024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화 논의 본격화	원격의료·AI 진단보조·데이터 활용 법제화	법제화, AI·데이터
2025(현재)	초고령사회 진입 단계	건강보험·장기요양 재정개혁 +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화	초고령사회, 플랫폼 헬스케어

한국 장기요양정책(LTC) 변화 (2008~2025)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시기	주요 정책 키워드	특징 / 영향
2005~2007	시범사업(20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07)	공적 장기요양제도 법적 기반 마련
2008.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세계적 수준의 공적 LTCI 도입, 건강보험공단(NHIS) 운영
2013~2017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공급 확대, 품질관리 제도화 시작
2014.7	치매 경증까지 수급 자격 확대	접근성 확대, 초기 치매환자 서비스 가능
2016~2020	3차·4차 국가치매계획 연계	예방·조기진단·지역 관리체계 강화
2018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발표	'시설 → 재가·지역 중심' 전환 정책 가속
2019	통합돌봄 선도사업 착수	지자체 주도 돌봄 모델 실험
2020s	급여·수가·품질평가 고도화	고령화에 따른 지출 급증 →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 부각
현재 (2025)	통합·디지털 전환 강조	재가 돌봄 확대, AI·IoT 등 디지털 헬스케어 연계 시도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키워드, 왜 반복될까?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 | | |
|--|---|
|  2000년대 초반 → 전산화, 보험 통합망 |  2020 (코로나19) → K-방역 IT, 역학조사 앱 |
|  2005~2007 → U-Health (원격진료 개념) |  2020 (한시) →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 |
|  2008 이후 → EHR/EMR, HIS |  2021~2022 → 클라우드 의료, 마이데이터 |
|  2010년대 중반 → 보건의료 빅데이터 |  2023 → 디지털플랫폼 정부, 마이헬스 데이터 |
|  2014~2016 → 모바일 헬스, 웨어러블 |  2024 → AI 진단보조, 디지털 치료제(DTx) |
|  2017~2018 → AI·IoT 헬스케어 |  2025(현재) → 플랫폼 헬스케어, 재가·초고령 맞춤 케어 |
|  2018~2019 → 커뮤니티 케어 플랫폼 | |

헬스케어 디지털화, 왜 어려운가?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대한민국	국제 비교
제도·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화 지연 (원격진료, AI, 데이터 활용)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분리 운영 디지털 헬스 수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원격진료·DTx 보험 적용 점진 확대 EU: GDPR 기반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산업·비즈니스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 부재,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부족 기업·병원 단위 파편화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절적 (정책 측면) 2. 지속가능성 (수익성/사업성)
기술·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운용성 부족 (EHR/EMR, 장기요양, 웨어러블) 데이터 품질·표준화 한계 보안·프라이버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데이터 안전성 (환자/사용자 안전) 4. 표준화 (프로세스 효율화/질 관리) 5. 환자 여정 이해 부족 (신뢰/접근성) 6. 사용자 중심적 이해 부족 (수가)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계 내부 직역·수가 문제 갈등 환자/사용자 신뢰 부족 (AI, 데이터 활용) 고령층·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의료 접근 불평등 디지털 수용도 통한 극복 가속 EU: 공공 신뢰도 비교적 높음,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강함 일본: 고령사회 특성상 디지털 격차 문제 한국과 유사

다른 나라 성공사례, 우리는 그럼?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이슈·문제 정의	해외 레퍼런스	예상 소요 기간	실행 가능성	제안 전략
1 전환의료·가상병동 PoC (재가 중심 돌봄)	미국 RPM, 영국 Virtual Ward, 호주 Hospital in the Home,	6-12개월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원 후 30일 집중관리 지자체·상급병원 공동팀 KPI 설정: 재입원율·응급실 방문률
2 의료진·교육과 EHR 내 앱 통합	미국 SMART on FHIR, NHS AI 가이드	6개월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Embed App. within EHR + Online CME → 사용자 경험 개선
3 디지털 격차 해소 (고령층 교육·기기 보조)	일본 지역포괄케어, 싱가포르 HealthHub	6-12개월	중간~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돌봄 코치 공공 보조금·통신 데이터 패키지

다른 나라 성공사례, 그럼 다음은?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이슈·문제 정의	해외 레퍼런스	예상 소요 기간	실행 가능성	제안 전략
디지털 헬스 수가·보상체계 설계	미국 CMS RPM/RTM, 독일 DiGA	12-18개월	중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Track 보상모델(초기세팅·물관리·성과연동) 조건부 급여 도입
국가 상호운용성·FHIR API 레퍼런스 구축	덴마크 MedCom, 핀란드 Kanta	12-24개월	중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K-FHIR 프로파일 정의 개발자 샌드박스 제공
디지털 치료제(DTx) 평가·조건부 급여	독일 DiGA Fast-Track	18-24개월	중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기반 신속평가·조건부 보험 적용
데이터 거버넌스·프라이버시 체계	EU GDPR/EHDS, 에스 토니아 X-Road	24-36개월+	낮음~중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 동의 대시보드 + 감사로그 열람 국가 차원 가명처리 인프라
지속 가능한 재정 개혁 (건보·장기요양 통합·연계)	일본 지역보험 개혁, EU 복합재원 모델	36개월+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재정 연계 모델 도입 검토

한국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슈별 해결 가능성과 우선순위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해결 예상 소요 기간	이슈	빠른 해결 가능성
단기 (1-2년)	민관 협력 부족	높음 - 협력모델 설계 가능
단기 (1-2년)	표준화 부재	중간~높음 - 핵심 데이터셋 부분 적용 가능
단기 (1-2년)	데이터 안전성 불안	높음 - 동의/가명화 기술 적용 가능
중기 (2-3년)	통합 돌봄 지역별 역할 모호 지속적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중간 (프로토콜/매뉴얼 개발 필요)
중기 (2-3년)	지자체별 격차	중간 (성과 기반 인센티브로 완화 가능)
중기 (2-3년)	지역의료 불균형	중간 (원격 모니터링으로 보완 가능)
장기 (3-5년+)	분절적 지불체계·제도 칸막이	낮음 (제도 개혁 필요)
장기 (3-5년+)	정부 건강보험 재정 압박	낮음 (재정 구조 개혁 필요)

지역사회 헬스케어 플랫폼 실행 순서 (단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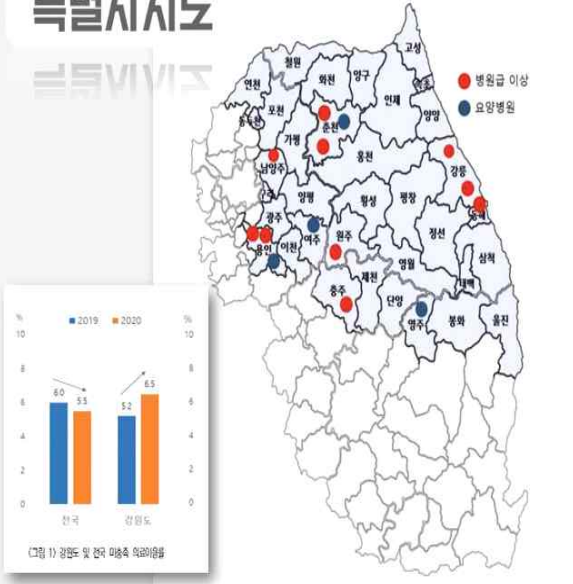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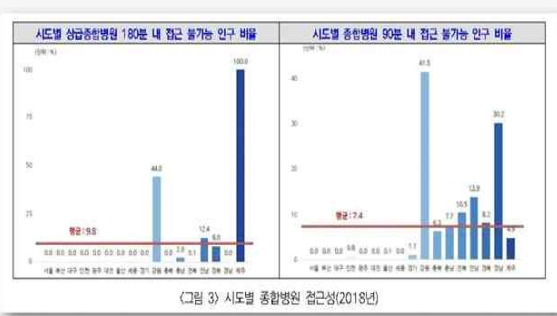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미국 CMS RPM → 원격 모니터링 CPT 코드 보상.
 영국 Virtual Ward → 재가 가상병동 모델 도입. 독일 DiGA → 디지털 치료제 패스트트랙 + 급여화. 덴마크 MedCom/핀란드 Kanta → 국가 단위 데이터 상호운용성.
 싱가포르 HealthHub → 고령층 친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주도 교육.

1. 지역 자원 이해

강원 특별자치도



2023 강원특별자치도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특례 발굴 연구
 강원연구원 박상용 연구위원

2. 인구학적 특성 및 라이프스타일 이해



WE LOVE WHAT WE DO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3. 지속가능한 질적 돌봄 설계



WE LOVE WHAT WE DO

핵심고객	서비스 라인	서비스 별 자격을 갖춘 제공자 양상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및 질적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표준화 (QAPI 설정), 지속 가능한 지불구조 전략	우선순위 대상자 환자 여정 및 치료 전략에 대한 이해 기반 케어 플랜과 실행
노인 65세 이상	가정의료(간호(사)나 어리빙 포함)	전문의료진 제공	단기 (<60일), 시간제, 의학적으로 필요한, 전문의료진 케어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통해 환자가 독립할 수 있게 도와줌	성인 또는 노인이 수술, 질병 또는 부상에서 회복하고 그로 인한 쇠약과 통증이 있는 경우
	각 지역 특성화 요양 프로그램	보조	성인 및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ADLs)을 위한 퍼스널 케어 및 동반자 역할	장기간 동안 일상생활 동작 도움(~20 hours/week)이 필요한 복합 만성 질환, 쇠약 및 불안정한 상태 중복으로 자격 충족 가능
	요양	보조	성인 및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을 위한 퍼스널 케어 및 동반자 역할	복합 만성 질환, 쇠약 및 불안정한 상태로 일상생활 동작 도움이 필요하고 개인 케어에 대해 지불 가능한 성인/노인
	호스피스	전문의료진 제공	증상 관리와 삶의 질에 중점을 둔 호스피스 의료 (사회적/정서적/영적 케어 (이 케어는 선택이 아님))	시한부 상태 (예: CKD, ALS, 암)의 환자 중 질병 예후가 6개월 이하인 환자
장애 소아청소년 (0-17세), 어른 (18세+)	SNU / 소아	전문의료진 제공	전시간의 간호 서비스: 장기 발달 장애 환자들을 위한 투약, G-tube, 기관절개술 및 인공호흡기 관리	뇌성마비, 척수성 근위축, 발작장애 등 발달장애가 있는 소아 및 청소년
	SNU / 성인	전문 의료진 제공	전시간의 간호 서비스: 장기 발달 장애/부상 환자들을 위한 투약, G-tube, 기관절개술 및 인공호흡기 관리	외상성 뇌손상, 근위축성측색경화증,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발달 장애 혹은 만성 질환이 있는 성인
	지역/발달장애 훈련 프로그램 ¹	보조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지역사회 통합, 단기 케어, 및 개인 지원 서비스	
	행동치료 ²	전문의료진 제공	가정, 지역사회 또는 비아다 센터에서의 응용 행동 치료 분석 요법 Applied Behavior Analysis (ABA)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소아 및 청소년

Source: BAYADA. (1) 어린이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오늘날 주로 주에서 허용/연제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방식 때문에 주로 성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대상 인구는 어른이며, 성인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성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와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4. 돌봄 형태별 적용 범위와 호환성 이해 '하드웨어'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병원에서 집으로,
다시 일상으로**

*From hospital to home,
exceptional care continues every step of the way*

최적의 환자 치료 여정에
바이다가 함께 합니다.

퇴원 환자를 위한
전문 코디네이션
BAYADA Transitional Care
프로그램

Compassion. Expertise. Reliability.

Continuing to grow.

5. 돌봄 제공 프로세스 표준화=운영 효율화 '소프트웨어'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6. DATA/AI 전략 기반 모니터링 플랫폼 + 환자중심 IoT/ICT'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7. 지속가능성 유지; 질적 서비스와 데이터 관리 [QAPI]



KEEP CONFIDENTIAL. DO NOT DISTRIBUTE W/O PRIOR WRITTEN CONSENT FROM BAYADA HOME HEALTH CARE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본 글로벌 수준의 환자 안전, 데이터 안전 관리 기준과 프로세스 마련 = 지속가능성 보장

이익	설명
품질 보증	인증은 홈 헬스케어 제공자가 품질과 안전의 특정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지 확인함. 이러한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제공자는 환자의 가정에서 환자에게 고품질의 케어를 제공하는 데에 몰두함을 나타냄.
환자 안전	인증 표준은 주로 감염 관리 프로토콜, 투약 관리 및 비상 대비 등과 같은 환자 안전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표준을 준수하면 이상반응/부작용의 위험이 줄어들고 환자 안전을 강화함.
소비자 신뢰	인증은 환자 및 그들의 가족들에게 홈 헬스케어 제공자가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쳤으며 인정된 우수한 표준을 충족시켰다는 확신을 제공하며 이것은 제공하는 치료의 질에 대한 신뢰를 심어줌.
규제 준수	인증은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와 같은 정부 기관이 설정한 규제 요구 사항과 일치함. 인증을 달성함으로써 동시에 제공자가 인증 및 규제 표준을 충족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규정 준수 노력을 간소화할 수 있음.
지속적 개선	인증은 홈 헬스케어 기관 내에서 지속적인 치료의 질 개선 문화를 촉진하며 자가 평가, 성과 측정 및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제공자는 항상 위한 영역을 파악하고 치료 제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함.
전문 인력 개발	인증 표준은 주로 직원 자격, 직원 교육 및 전문성 개발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홈 헬스케어 기관이 직원에 투자함으로써 직원이 유능하고 포용력있게 환자에게 케어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도록 보장함.
시장 차별화	인증된 기관은 인증 받지 못한 기관보다 환자 및 지불자에게 선호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비즈니스 기회와 시장 점유율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



WE LOVE WHAT WE DO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돌봄: 이점과 도전

박경옥 교수(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돌봄 : 기회와 도전

Technology-Shaped Car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차례

01
용어정의

02
복지기술의 목적과
활용분야

03
복지기술의
활용사례

04
복지기술 사용의
이점과 과제

용어정의 : 돌봄

● 돌봄(caring)

: 돌보다 -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

: 돌봄(care) – 의존적인 타인의 안녕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한 행위이자 태도 (에바 키테이, 1999)

: 일반적으로 돌봄은 어린 자녀를 보살피거나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보살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돌봄은 특별히 취약한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 존재라는 점에 돌봄 책임의 **사회적 보편성**이 있다. .

: 사회 모든 구성원은 돌봄의 보편적 권리와 보편적 의무가 있다(석재은, 2018)

→ 이것이 자동차 공장의 자동화와 다르게 기술 기반 돌봄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차이

03

용어

●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돌봄·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며, 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덴마크 사회복지청, 2013).

● 보조기술, 지원기술(Assistive technology)

: 장애나 기능저하를 가진 사람이 기능을 향상시키고 독립성을 촉진하며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품, 장비, 도구, 서비스(WHO, 20118)

● 노인을 위한 기술(Geron-technology)

: 고령자(geron)와 technology의 합성어로, 고령화로 인한 신체·인지·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 독립성, 안전,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계된 기술 분야(International Society for Gerontechnology., 2020)

→ 이러한 기술은 낮은 수준의 기술부터 높은 수준의 기술까지 모두 포함

ex) 손 근육에 문제를 가진 장애인이 연필을 잡을 수 있도록 손과 연필을 테이프로 감는 낮은 차원의 기술 ~ 로봇 기술과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까지 포함 (Schneider et al., 1999)

06

- **로봇과 로봇기기** : 이동, 조작 또는 위치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가진 프로그래밍된 구동 메커니즘(국제표준화기구 ISO(8373:2012))
- **개인돌봄로봇** : ISO (13482:2014)는 비제조(비산업) 환경에서 사람을 돌보거나 지원하는 개인 돌봄 로봇(personal care robots)의 설계 및 사용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적용 대상은 모바일 서번트 로봇 (mobile servant robot), 물리적 보조 로봇 (physical assistant robot), 사람 운반 로봇 (person carrier robot)을 포함하고 있다.
- **돌봄로봇** :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또는 고령자를 위한 활동을 돕는 로봇(문인혁 등, 2023)



07

복지기술 사용 목적

인간의 독립성, 안전, 참여
강화

장애인 / 노인 /
만성질환자의 기능 보조

노인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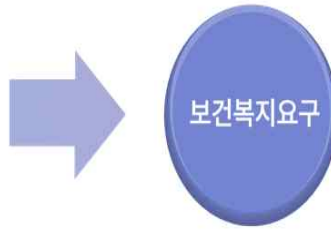
노인 / 장애인의 가족과
돌봄제공자 지원

복지서비스의 효율화

08

복지기술의 영역

- 복지기술**
- 통신지원
 - 보조기술
 - 일상생활 지원
 - 질병 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 재활기술
 - 오락
 - 사회적·감정적 지원



목적과 기능에 따른 복지기술 분류

기술 / 목적	예 / 기능		
통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시청각 접촉을 위한 기술 - 고령자에 대한 육체활동 모니터링(PAMP) - 접근을 허용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ID 카드 - 번역 서비스 - 사회적 그룹 (시청각 기술, 원격현실) - 환자 정보(웹-기초, 상호적인) 	일상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일(음식 만들기, 진공 청소, 정돈하기) - 약 치료를 보조하는 것, 자동 약 지급기 - 개인의 위생, 자동세탁 - 영양, 음식 자동장치 - 운동 - 쇼핑, 주문, 상품 수집과 같은 일상적인 일을 돕는 것
보조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시스템(열, 빛 잠긴 문에 대한 경보기), 안전 경보기, 낙상 감지기 - 경보 시스템(소리, 빛, 진동) - 이동 기술, 전동 보행기,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 감각기관의 문제를 보조할 수 있는 기술: 시각 보조, 청각 보조 - 활동을 피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 수단들: 손잡이, 스위치, 신호, 표시, 형태와 디자인 - 먹고 마시는 것을 돕는 것 - 지능적 인공기관 - 방향과 운항 도움, GPS(소리, 빛, 이동 등에 기반) - 물건과 사람에 대한 추적 시스템 - 행동 또는 이동을 지도 및 접근 제한 (e.g. 치매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 인지적 훈련과 도움 	질병 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변화에 대한 대안모니터링, 가정에 조정시킨 치료와 돌봄, 전달, 평가, 모니터링(생체신호 및 알람) - 검진, 약 치료, 후속 조치 - 로봇 기술 - 정신 치료, 정보통신기술
		재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 지도(교육과 수행) - 이동과 이동성 구동(뇌졸중 후에 걸을 수 있는 능력의 전자기계적 훈련)
		오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와 즐거움 - 소셜 로봇
		사회적·감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자(동물형태 로봇, 도우미, 대화 파트너) - 자극

노인친화기술의 국제 동향

- 1960-70년대: 휠체어, 보청기, 보조도구 등 재활·보조공학(assistive devices) 등장
- 1980년대 :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노인에 특화된 기술 필요성이 대두
- 1992년: Bouma & Graafmans에 의해 개념화 "Gerontechnology"가 학술적으로 처음 등장. 기술을 단순 보조가 아니라 노년기의 건강, 독립성, 사회참여,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학문 분야로 규정
- 1995년: International Society for Gerontechnology (ISG) 창립 Gerontechnology 연구자들이 모여 국제 학회(ISG)를 설립학회 설립 이후, 정기 학술대회(International Gerontechnology Conference)가 시작됨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AI, 로봇,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Gerontechnology 개념이 더욱 확대됨.
 - AI 기반 돌봄 로봇 (예: Paro, Hyodol, Temi-care)
 - 스마트홈 & IoT 모니터링 (낙상 탐지, 활동 패턴 분석)
 - 디지털 헬스, 원격의료, 헬스 데이터 통합인지훈련 기술 (virtual reality, cognitive support systems)

11

노인친화기술의 국내 동향

-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자를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주택, 시설 또는 서비스를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의 활성화
- I-KOREA 4.0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4대 혁신·복합과제에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돕는 기술 개발 추진 확대(2017)
-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추진(2025)

12

I-KOREA 4.0

- ㉓ 의료: 진료정보 전자교류 전국 확대,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확산, 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 ㉔ 스마트시티: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 구현, 자율제어 기반 지능형 스마트홈 확산
- ㉕ 제조: 최적화 단계 스마트공장 확산, 지능형 협동로봇 개발, 제조 서비스화
- ㉖ 교통: 지능형 신호등 확산, 교통사고 위험 예측·예보 서비스 고도화
- ㉗ 이동체: 고속도로 자율차 상용화, 산업용 드론 육성, 자율운항선박 도입
- ㉘ 복지: 간병·간호 지원 로봇 도입, 노인치매 생활보조 혁신
- ㉙ 안전: 노후 시설물 관리 스마트화,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최적안전 향로 지원

Age-Tech 실버산업육성 5대 핵심분야

AI 돌봄 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및 치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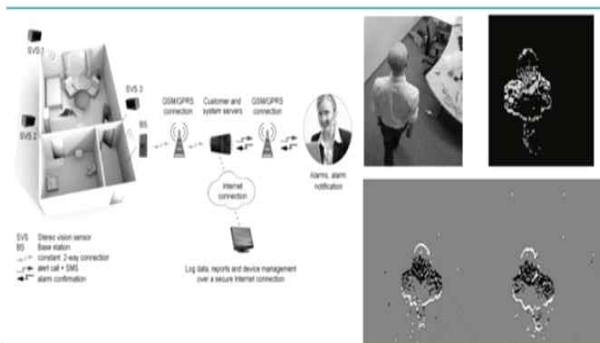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

13

노인친화기술의 사례 및 활용 예

〈그림 5.2〉 낙상감지 및 알림



스마트홈

- 시각 센서가 경보, 보안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통합되어 집에서 고령자를 분석하고 추적 (예, 추락 탐지, 당사자의 즉각적인 경보로 연결)
- 사물인터넷(IoT)과 생체 인터넷(IoB) 기술 : 생체데이터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거나 체내로 받아들이는 음식, 공기, 체온, 혈당, 산소포화도, 대상자의 기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
-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맞춤형 운동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운동기구의 사용

15

AI 돌봄로봇



<https://www.youtube.com/watch?v=kQ2fSap1E2I>



https://www.youtube.com/watch?v=VyM6NmEX_Og



복지기술 (예, 돌봄로봇) 사용의 이점과 과제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로봇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함
 - 언론 보도나 사회적 담론에서 로봇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어, 신뢰 형성에 장애가 됨
- 신뢰의 부족
 - 신뢰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현상으로, 사람-로봇과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신뢰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로봇이 인간-기계 관계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음
 - 로봇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거나 확장하면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인식 혼란이 발생함
- 특히 서구 문화권에서 로봇과의 접촉 경험이 부족함
 - 로봇을 일상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어, 친숙함이나 수용도가 낮음

외형에 대한 심리적 반응

- 너무 로봇처럼 보임: 죽음, 터미네이터 영화 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 연상, 인간 대체에 대한 두려움
- 너무 인간처럼 보임: 기대치가 과도하게 높아짐

업무 구조의 변화 : 보건의료 업무의 조직과 분배 방식 변화

- 역할 변화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는가, 아니면 보완하는가, skill mix)
- 업무 흐름(workflow)의 변화

새로운 윤리적 법적 과제

- 기존의 책임 및 윤리적 프레임워크 부재
- 향후 발생할 문제를 예측하여 대책 마련
- 일상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함

Cresswell, K., S. Cunningham-Burley and A. Sheikh (2018). Health Care Robotics: Qualitative Exploration of Key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J Med Internet Res, 20 (7) e10410

“잡일은 로봇이 하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체위 변경을 해야 되면 힘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훨씬 수월할 거 같아요”
 “치매 어르신 이상한 (문제)행동 보이면 짜증내는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로봇이) 힘든 일을 대신해주고 끌어안는 사람도 막아줄수 있다”
 “감정적인 상처를 피할 수가 있다 (예, 환자들의 욕설)”
 “학대로 의심받을 때가 있는데 이를 돌봄로봇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바이러스나 위험한 곳, 안전환경에 문제가 있는 곳에 로봇을 대신하여 투입할 수 있다”
 “오히려 기계를 다루는 직종이 새로 생겨날 것이다”
 “(로봇이)사람보다 정확성이 늘어날 것 같다”, “로봇이기에 믿을 만 할 것이다”
 “(로봇으로 받는) 서비스가 덜 인간적이지만 덜 부담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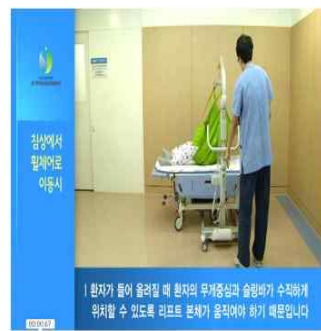
“목욕을 시키고 음식을 먹이는 등의 매일의 일상 보조를 하지 않게 된다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이들과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로봇(돌봄)이 사회적 관계를 훼손하고, 타인과의 사회적 연결에서 개인들을 떼어놓을 수 있다(고립)는 점”을 우려한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많은 기관이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들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이들 기계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돌봄 일자리는 줄어들고,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들은 점점 더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적어지리라” 예측한다.
 “돌봄은 기계에 의해 대체 될 수 있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노동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한다.”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한 인간을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닌가?”

박경욱, 김지환 & 류한별(2020). 돌봄로봇의 사회적 가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돌봄 로봇은 편리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으나
- 돌봄 제공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돌봄 받는 자의 사회적 관계 및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비인간적인 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기술기반돌봄(로봇돌봄)에 대한 질문들

- 로봇돌봄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가?
- 우리가 기대하는 로봇돌봄과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로봇돌봄 사이의 간극에서 돌봄 제공자는 어떤 부담과 책임을 떠안게 되는가?
- 돌봄책임의 사회적 보편성은 로봇돌봄으로 강화될것인가, 약화될 것인가?
- 로봇돌봄의 시대에 사람 돌봄자의 고유 역할은 무엇인가?
- 기술기반 돌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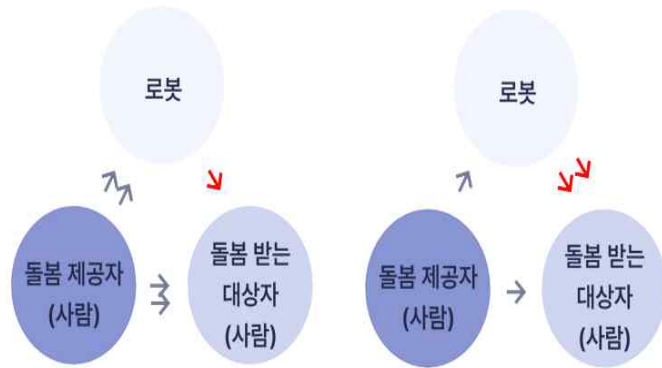


돌봄로봇의 사회적 가치

Transfer assistance care robot	
Repositioning assistance care robot	
Toilet assistance care robot	
Feeding assistance care robot	

[Fig. 1] Four types of physical-assistance care robot

- 기술 수준이 낮은 로봇일수록 (사람-로봇) 돌봄과 (사람-사람) 돌봄 제공
- 돌봄을 보조하는 로봇 = 돌봄보조로봇
→ 돌봄보조로봇은 돌봄서비스 적용 전과 후 또는 돌봄과정 전체에서 돌봄주는자의 통제나 조작이 필요한 로봇이 대부분임



21

기술기반돌봄(로봇돌봄)에 대한 질문들

- 로봇돌봄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가?
- 우리가 기대하는 로봇돌봄과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로봇돌봄 사이의 간극에서 돌봄 제공자는 어떤 부담과 책임을 떠안게 되는가?
- 돌봄책임의 사회적 보편성은 로봇돌봄으로 강화될 것인가, 약화될 것인가?
- 로봇돌봄의 시대에 사람 돌봄자의 고유 역할은 무엇인가?
- 기술기반 돌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2

3. 연구내용

4 세부과제 | 돌봄 로봇의 사회적 가치 : 연구 목표 & 주요 결과

노동사회적 가치	01 돌봄 역량 향상	돌봄을 주는 자가 더 많고 복잡한 돌봄 업무를 우수하고 전문적이며 높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돌봄 로봇의 가치
	02 필수돌봄노동 제공	침상 간호와 같이 간접적이고 낮은 가치로 평가되어지며, 단순하고 반복적이지만 돌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로봇의 가치
	03 작업환경의 안전	돌봄 환경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감정적 폭력과 안전사고로부터 돌봄 주는 자를 보호하는 돌봄 로봇의 가치
	04 돌봄부담경감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돌봄 로봇의 가치
보건사회적 가치	05 대상자 요구와 자율성	돌봄 받는 자의 자율성, 요구, 관심, 선호도, 기대를 수용하는 '돌봄 받는 자 중심의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돌봄 로봇의 가치
	06 독립적인 생활	돌봄을 받는 자가 일상활동, 도구적 일상활동, 자가 간호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돌봄 로봇의 가치
	07 건강, 안전, 기능 향상	돌봄 받는 자가 적절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고, 안전한 이동과 균형을 유지하며, 다양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돌봄 로봇의 가치
혁신적 가치	08 기술 혁신	최소한의 무게와 부피, 균일성, 운동속도, 최적의 디자인과 같은 새로운 사고와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 분야에서의 돌봄 로봇의 가치
	09 조직 혁신	사용 환경, 이해 관계자의 입장 확립, 윤리적/사회적 이슈,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사고, 전망, 협력관계를 창출하는 조직 분야에서의 돌봄 로봇의 가치
경제적 가치	10 노동 및 건강관련 편익	돌봄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의 감소, 새로운 고용 창출, 돌봄시간 감소, 건강수준의 향상과 같은 노동 및 건강과 관련하여 돌봄 로봇에 의해 얻어지는 효용에 대한 돌봄 로봇의 가치
	11 로봇 개발 및 관리 비용	돌봄 로봇의 실용화, 사업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대량생산과 같이 돌봄로봇의 개발, 생산, 관리에 투입된 가격에 의해 측정되어지는 돌봄 로봇의 가치

박경옥, 김지환 & 류한별(2020). 돌봄로봇의 사회적 가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돌봄로봇의 사회적 가치

01 돌봄 역량 향상

02 필수돌봄노동 제공

Q1. 기술 기반 돌봄의 결과로 돌봄 역량은 높아지고 필수돌봄 노동은 로봇에게 이행될 것인가?

Archibald & Barnard(2018). Futurism in nursing: Technology, robotics and the fundamentals of care

- 기술은 간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
: 기술은 반복적 업무, 위험한 업무는 잘 수행하지만 인간 중심 돌봄(caring relationship)을 대체할 수 없음.
- 'Fundamentals of Care(간호의 기본)'은 인간적 상호작용이 핵심
: 기본 간호는 다음 요소에 기반: 신뢰, 공감, 관계, 터치·상호작용. 이 요소는 기술로 대체하기 불가능하며 간호의 본질로 남음.
- 로봇과 기술 도입은 간호사의 역할 재정의를 요구
: 간호사가 해야 할 핵심 기능의 이동: 기술 활용 능력, 복잡한 임상 판단, 인간 중심 돌봄 유지, 기술이 채울 수 없는 간극(ethical gap) 관리
- 기술 도입은 윤리적·정서적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 유발
: 환자의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안, 기술 의존성 증가, 인간-기계 관계의 모호성 등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
- 간호사들은 기술 변화에서 "적극적 주체"가 되어야 함
: 기술 개발자·정책가를 대상으로 간호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함.

24

돌봄로봇의 사회적 가치

03 작업환경의 안전

04 돌봄부담경감

Q2. 기술 기반 돌봄의 결과로 돌봄 노동자의 고용, 작업환경은 개선될 것 인가?

Q3. 기술 기반 돌봄의 결과로 돌봄 제공자의 부담(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은 낮아질 것인가?

25

돌봄로봇의 사회적 가치

05 대상자의 요구와 자율성

06 독립적인 생활

07 건강, 안전, 기능 향상

Q4. 기술 기반 돌봄의 결과로 돌봄을 받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 인가?

26



27

참고문헌

- Kittay, E. F.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Routledge.
- 석재은(2020).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조명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72(4)
- 허라금(2018). 관계적 돌봄의 철학: '필요의 노동'을 넘어 '정치적 행위'로, *사회와 철학*, 제35집 2018. 4
- 구미영 등(2018).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해외 정책사례 연구 : 노인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a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2013). *Welfare technology in Denmark: An overview*. Copenhagen: Danish Government.
- Andersson, K., & Kärrholm, J. (2018). Welfare technology and user involvement in Swedish elder care. *Nordic Welfare Research*, 3(1), 48-57.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Assistive technology: Key facts*. WHO.
- Cook, A. M., & Polgar, J. M. (2020). *Assistive technologies: Principles and practice* (5th ed.). St. Louis, MO: Elsevier.
- Bouma, H., & Graafmans, J. (1992). Gerontechnology: A new interdisciplinary field. *Gerontechnology*, 1(1), 3-10.
- International Society for Gerontechnology. (2020). *Gerontechnology: Definition and mission*. ISG.
- Parviainen et al., (2018). Robots and Human Touch in Care: Desirable and Non-Desirable Robot Assistance,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ICRS 2018, Qingdao, China, Nov 28-30, 2018.
- Archibald, M. M. and A. Barnard (2018). Futurism in nursing: Technology, robotics and the fundamentals of care, *J. Clin Nurs*. 2018;27:2473-2480.



AI캠퍼스 소개

주용완 교수(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포스터 발표



제목 : 협력적 교우관계와 학업성취도의 상관성	
참여 연구자	성명 : 권도현 ¹ 이다현 ¹ 허만섭 ² 소속 : 보건복지대학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직위 : ¹ 학부학생, ² 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episteme@gwnu.ac.kr
<p>필요성 및 목적</p> <p>교우관계와 학업성취도, 자존감은 대학생이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중요하다. 이 세 요인 및 성별, 직전 학기 학점 간 어떠한 연관성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첫째, 대학생의 협력적 교우관계 수준과 학업성취도 간 상관성이 있는지 탐구한다. 둘째, 대학생의 자존감과 학업성취도 간 상관성이 있는지 탐구한다. 자존감이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셋째, 1~3학년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p> <p>연구방법</p> <p>가설1(상관분석): 협력적인 교우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2(상관분석): 자존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3(일원배치분산분석): 학년별 학업성취도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p> <p>연구결과</p> <p>가설1의 결과: 친구들과의 협력 정도와 학업성취만족도 간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피어슨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상관계수(r) = .583, $p < .001$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임이 나타났다. 해석: 친구들과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학업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즉, 협력적 교우관계는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2의 결과: 자존감과 학업성취도 간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피어슨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상관계수(r) = .435, $p < .001$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임이 나타났다. 해석: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뚜렷했다.</p> <p>연구결과</p> <p>가설3의 결과: 학년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했다. 기술통계분석결과, 2학년의 평균 학업성취도(4.13점, SD = .88)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1학년(3.67점) 3학년(3.13점) 순이었다. 학년별 표본 크기가 불균형해 ANOVA의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Welch 로버스트 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Welch 통계량 = 6.291, $p = .025$로 나타나 학년 간 학업성취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학년 간에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Dunnett T3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1학년과 3학년 간($p = .088$), 2학년과 3학년 간($p = .048$) 유의한 차이가 발견됐다. 해석: 학년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2학년생이 가장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경향이였다. 이는 학년별 학업 적응도와 학습 동기의 구조적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p>	

평균의 동질성 로버스트 검정

학업성취평균				
	통계 ^a	df1	df2	CTT 유의확률
Welch	6.291	2	7.508	0.025

a. 자동으로 F 분배합니다.

사후검정

다중비교

종속변수: 학업성취평균
Dunnett T3

(i) 학년숫자	(j) 학년숫자	평균차이(i-j)	표준오차	CTT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00	2.00	-0.45109	0.34326	0.497	-1.4159	0.5137
	3.00	0.54891	0.19358	0.088	-0.0959	1.1937
2.00	1.00	0.45109	0.34326	0.497	-0.5137	1.4159
	3.00	1.00000 [*]	0.33408	0.048	0.0113	1.9887
3.00	1.00	-0.54891	0.19358	0.088	-1.1937	0.0959
	2.00	-1.00000 [*]	0.33408	0.048	-1.9887	-0.0113

*. 평균차이는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그림. 학년별 학업성취도 ANOVA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교우관계, 학업성취도, 자존감 간 연관성을 알아봤다. 탐구결과, 협력적 교우관계와 학업성취도 간에 유의한 정비례의 높은 상관성이 발견됐다. 팀프로젝트, 조별 과제가 많은 대학의 특성상 주변 친구들과 잘 협력하는 학생이 높은 학업성취도를 올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년 별 학업성취도에서도 2학년, 1학년, 3학년 순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협력적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학년별 학습 동기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Key Words : 협력적 교우관계, 학업성취도, 학년, ANOVA, 사후검정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제목 : 친구관계 좋은 학생이 자존감 높다	
참여 연구자	성명 : 김가윤 ¹ 김상연 ¹ 허만섭 ² 소속 : 보건복지대학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직위 : ¹ 학부학생, ² 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episteme@gwnu.ac.kr
<p>필요성 및 목적</p> <p>대학생은 학업적 요구, 대인관계 갈등, 진로 불안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존감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심리 요인이다.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존감 수준이 또래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다. 한편, 대학 시절 형성되는 교우관계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정체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 학습 정보 공유 및 학교 적응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긍정적인 교우관계는 스트레스 완충 효과를 가진다.</p> <p>대학생은 입시 중심 환경을 벗어나면서 학습 방식이 자기주도형으로 전환되고 대인관계도 변화한다. 정서적 불안정을 겪는 경우도 많아, 자존감과 교우관계는 청소년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은 전공 선택, 미래 진로, 사회적 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자존감은 전반적인 대학생활의 질을 좌우한다. 대학생의 교우관계는 또래 중심에서 벗어나, 전공 내 협업, 동아리 활동, 팀 프로젝트, 네트워크 형성 등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단순한 정서적 지지 차원을 넘어 정보 획득 등 실질적 영향력이 더 커진다.</p> <p>자존감과 교우관계가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탐구는 여전히 부족한데, 본 연구는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p> <p>연구방법</p> <p>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자존감과 교우관계만족도는 서로 연관되는가?”</p> <p>연구방법과 관련해, 설문조사에 응답자의 학년, 성별,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배치해 데이터를 수집했다. 대상 학교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라대학교, 동국대학교였다. 이들 학교의 재학생 132명이 응답해 주었다. 수집된 데이터에 결측치는 없었다.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8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검증방법으로는 이변량 상관분석을 활용했다.</p> <p>연구결과</p> <p>자존감 문항들과 교우관계 만족도 문항들의 신뢰도를 분석했다. 자존감을 묻는 4개 문항은 5점 선형 배율(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됐다. 질문 내용은 ‘나는 친구들에게 존중 받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내가 가진 장점들에 만족한다’ ‘나는 다른 사람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였다.</p> <p>교우관계 만족도를 묻는 3개 문항도 5점 선형 배율로 구성됐다. 질문은 ‘나는 친구들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나는 친구들 앞에서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나는 현재 친구들과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였다.</p> <p>크론바흐 알파 값은 자존감 문항들이 .912였고 교우관계 만족도 문항이 .846여서 모두 신뢰도에 문제가 없</p>	

었다(그림). 이에, 자존감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자존감 변수를, 교우관계 만족도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교우관계 만족도 변수를 만들었다.

연구결과

신뢰도 통계량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표준화된 항목의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Cronbach의 알파	표준화된 항목의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912	.911	5	.846	.847	3

그림. 자존감 문항들과 교우관계 만족도 문항들의 신뢰도

자존감 변수와 교우관계 만족도 변수 간 상관분석을 한 결과, 두 변수간 피어슨 상관계수(r)는 .720으로 나타났다($p < 0.001$).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 사이엔 강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이들은 유의하게 교우관계 만족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역으로, 대학생들의 교우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들의 자존감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친구관계가 좋은 학생이 자존감도 높다는 일부의 인식이 확인되는 셈이다.

결론 및 제언

‘대학생의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는 서로 연관되는가?’라는 연구문제를 탐구한 결과, 둘 사이에 강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대학생이 교우관계에서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서적 교류를 하고 편익을 서로 주고받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면서 관계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면 내면의 높은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높은 자존감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매우 큰 가치가 있다. 대학생이 높은 자존감을 지니면서 어느 정도 폭과 깊이가 있는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낮은 자존감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지내는 것보다 더 나은 상태인지 모른다.

Key Words : 자존감, 친구관계,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 상관분석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제목 : 유튜브에 중독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	
참여 연구자	성명 : 김건우 ¹ 장수린 ¹ 허만섭 ² 소속 : 보건복지대학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직위 : ¹ 학부학생, ² 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episteme@gwnu.ac.kr
<p>필요성 및 목적</p> <p>본 연구는 현대인의 유튜브 이용 실태(시청 시간, 장르, 목적 등)를 파악하고, 유튜브 시청 시간이 개인의 심리적 자원인 회복탄력성 및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회복탄력성과 시청 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건강한 미디어 이용 습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p> <p>연구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튜브 시청시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응답자의 일일 평균 시청 시간을 시간 단위로 측정한다. 2. 회복탄력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개인의 심리적 역량을 측정한다. 3. 삶의 만족도: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전반적인 삶의 질과 만족도를 측정한다. <p>연구결과</p> <p>1. 빈도분석/기술통계</p> <p>본 연구는 유튜브를 이용하는 남녀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남성 25명(49%), 여성 26명(51%)으로 성별에 따른 편향이 없었다. 20 대가 78.4%를 차지해 디지털 미디어 활용도가 높은 청년층의 이용 특성이 결과에 주로 반영됐다.</p> <p>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르는 ‘엔터테인먼트’(74.5%)였다. 시청 목적으로는 ‘재미 추구 및 시간 때우기’가 84.3%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는 조사 대상자들에게 유튜브가 정보 습득이나 학습 도구 기능보다는, 일상적인 여가 활용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유희적 수단으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산출한 결과, 응답자들의 일일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은 약 3.06시간(M=3.06)이었다. 이는 현대인의 여가 시간 중 상당 부분이 유튜브 시청에 할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p> <p>또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개인의 긍정적 심리 기제인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52점(M=3.52)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보통과 양호 사이의심리적 회복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p> <p>2.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p> <p>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튜브 시청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p > .05$). “유튜브에 중독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는</p>	

일반적 통념과 달리, 단순히 시청 시간의 양 자체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단정적으로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반면, 회복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와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beta = .510, p < .001$)를 보였다.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유튜브 시청시간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회복탄력성($\beta = .510$)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임이 입증됐다.

계수^a

모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468	.261		9.452	<.001
	회복탄력성	.284	.069	.510	4.116	<.001
	5.귀하의 일일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숫자로만 입력해 주세요. (예: 1시간 30분일 경우 1.5 입력)	-.014	.035	-.049	-.392	.697

a. 종속변수: 삶의만족도

그림. 삶의 만족도 회귀분석

결론 및 제언

분석 결과, 유튜브를 오래 시청한다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건 아니었다. 시청시간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개인의 내적 자원인 회복탄력성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유튜브 이용시간 제한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학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단순한 미디어 통제 교육을 넘어, 개인의 심리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심리 지원 및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Key Words : 유튜브 시청시간,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제목 : 연락처(카톡)와 인스타그램 아이디(DM) 교환의 심리적 거리감	
참여 연구자	성명 : 김예진 ¹ 백기범 ¹ 허만섭 ² 소속 : 보건복지대학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직위 : ¹ 학부학생, ² 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episteme@gwnu.ac.kr
<p>필요성 및 목적</p> <p>스마트폰의 보편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카카오톡은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전 국민의 필수적인 소통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20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 사이에서는 카카오톡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의 DM(Direct Message)을 주된 소통 창구로 병행하여 사용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실제 사용자들은 친한 친구와는 인스타그램 DM으로 릴스(Reels)를 공유하며 대화하고, 조별 과제나 공적인 연락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등 상황에 따라 메신저를 무의식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두 플랫폼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진화했음을 의미하며, 특히 연락처(카톡)와 인스타 아이디(DM)의 교환이 내포하는 심리적 거리감이 다르다는 점은 20대만의 독특한 디지털 소통 문화를 시사한다.</p> <p>플랫폼 간 인식 차이 규명: 20대가 카톡과 DM을 공적 용도, 유희성, 관계 확장 목적에서 다르게 인식하는지 분석한다.</p> <p>심리적 기제 분석: 20대의 소셜라이프 욕구와 FOMO(고립 공포감) 성향이 두 메신저 병행 사용 등과 상관성을 갖는지 검증한다.</p> <p>연구방법</p> <p>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5년 11월 20대인 강릉원주대학교 재학생 및 일반인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는 모두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을 병행 사용했다.</p> <p>자료 수집 및 도구: 네이버폼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IBM SPSS Statistics 28을 사용해 분석했다.</p> <p>대응표본 T-검정: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DM 간 공적 용도, 유희성 등 인식 차이를 비교했다.</p> <p>빈도분석: 메신저 전환 이유의 항목별 응답 비율을 확인했다.</p> <p>상관분석: FOMO 성향, 자기표현 욕구, 병행 필요성, 대체 불가능성 간 연관성을 분석했다.</p> <p>연구결과</p> <p>플랫폼 간 인식 차이 (대응표본 T-검정)</p> <p>20대는 두 메신저를 기능적 목적에 따라 명확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공적 용도: 공적 용도 항목에서 카카오톡(M=3.60)이 인스타그램 DM(M=2.07)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t=5.426, p<.001), 카카오톡이 공적 목적에서 더 강하게 인식됨을 확인하였다.</p> <p>유희성 및 콘텐츠 공유: 반면 유희성 항목에서는 인스타그램 DM(M=4.30)이 카카오톡(M=2.33)보다 월등히 높았으며(t=-7.686, p<.001), 콘텐츠 공유 및 일상 확인 항목에서도 DM이 더 높은 선호를 보였다.</p> <p>관계 확장: 새로운 사람과 소통하는 관계 확장 항목에서는 두 메신저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p=.913).</p> <p>메신저 전환 이유 (빈도분석)</p> <p>사용자가 메신저를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화의 흐름 유지’와 ‘기능적 필요’ 때문이었다. 응답자의</p>	

46.7%(14명)는 “특별히 전화하지 않고, 시작한 곳에서 마저 대화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환한다고 응답했다. “파일 전송, 투표 기능이 필요해서(카카오톡으로 이동)”가 26.7%(8명), “릴스/스토리를 공유하기 위해(DM으로 이동)”가 16.7%(5명)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과 플랫폼 사용 (상관분석)

소셜라이프 욕구: 소셜라이프 욕구는 두 메시저의 대체불가능성 인식과 정(+)의 상관성($r=.521$, $p=.003$)을 보였다. 이는 소셜라이프 욕구가 높을수록 두 메시저를 서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그림).

FOMO 성향: 반면, 정보 소외에 대한 불안 성향은 두 메시저의 대체불가능성 인식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상관관계

		(자기표현욕구) 나는 타인에게 나의 개성이나 취향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동시 사용 필요성) 20대로서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대체 불가능성) 만약 둘 중 하나만 써야 한다면, 나의 소셜 라이프에 큰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자기표현욕구) 나는 타인에게 나의 개성이나 취향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Pearson 상관	1	.224	.329
	유의확률 (양측)		.233	.076
	N	30	30	30
(동시 사용 필요성) 20대로서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Pearson 상관	.224	1	.521**
	유의확률 (양측)	.233		.003
	N	30	30	30
(대체 불가능성) 만약 둘 중 하나만 써야 한다면, 나의 소셜 라이프에 큰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Pearson 상관	.329	.521**	1
	유의확률 (양측)	.076	.003	
	N	30	30	30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그림. 카카오톡-인스타그램DM 상관분석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20대는 카카오톡을 ‘공적 소통의 인프라’로, 인스타그램 DM을 ‘사적 소통의 놀이터’로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20대의 메시저 전환은 심리적 거리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며, 두 플랫폼을 병행하려는 핵심 동기는 소셜라이프 욕구였다.

서비스 차별화 전략: 메시저 서비스는 기능을 통합하기보다 각자의 강점(카카오톡=업무·일상 / 인스타그램=콘텐츠·유희)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사용자 경험(UX) 설계: 사용자가 목적에 맞는 도구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멀티호밍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간 전환이 용이하도록 UX를 설계해야 한다.

소셜라이프 기능 강화: 20대 사용자에게 메시저 선택은 자기 이미지 관리의 연장선이므로, 소셜라이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Key Words : 카카오톡, 인스타그램DM, 심리적 거리, 소셜라이프, 상관분석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제목 :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불편해질 때																												
참여 연구자	성명 : 김채민 ¹ 이정연 ¹ 허만섭 ² 소속 : 보건복지대학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직위 : ¹ 학부학생, ² 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episteme@gwnu.ac.kr																											
<p>필요성 및 목적</p> <p>사람들이 직접 만나 교류하며 서로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했던 과거와 다르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다양한 상호작용 방식을 통해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다루지지 않았던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이 실제 교우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긍정적·부정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스토리 기능이 실제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향후 건강한 온라인 교우관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p> <p>연구방법</p> <p>‘스토리 확인 빈도’, ‘이해도 및 유대감 향상’, ‘기대반응’ 등의 항목과 관련한 질문을 작성해 구글폼을 제작했다. 해당 폼을 응답자들에게 배포해 연구에 필요한 응답을 수집했다. 추가로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p> <p>연구결과</p> <p>‘타인이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자주 보는 집단일수록 일·취향·기분 변화를 더 잘 이해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가?’라는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했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분산의 동질성이 확인됐다. 독립표본 T-검정에서 저빈도 스토리 시청 집단과 고빈도 스토리 시청 집단 간 상대에 대한 이해도 및 상대와의 유대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그림1). 스토리 시청 빈도는 이해도와 유대감 향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427 1451 1161 1646"> <thead> <tr> <th>변인</th> <th>집단</th> <th>평균</th> <th>표준편차</th> <th>F</th> <th>t</th> <th>p</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이해도</td> <td>저빈도</td> <td>4.071</td> <td>.616</td> <td rowspan="2">.250</td> <td rowspan="2">.396</td> <td rowspan="2">.791</td> </tr> <tr> <td>고빈도</td> <td>4.000</td> <td>.618</td> </tr> <tr> <td rowspan="2">유대감</td> <td>저빈도</td> <td>4.500</td> <td>1.091</td> <td rowspan="2">.334</td> <td rowspan="2">.442</td> <td rowspan="2">.884</td> </tr> <tr> <td>고빈도</td> <td>3.562</td> <td>1.209</td> </tr> </tbody> </table> <p>*p > 0.05</p> <p>그림1. 인스타그램 스토리-이해도-유대감 T-검정</p> <p>‘스토리에 대한 답장이 사적인 일대일 대화로 발전할수록 관계의 친밀도와 교우관계의 깊이가 향상되는가?’라는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평가 요소인 답장-대화 전환, 사적 확장, 친밀감 향상 간 상관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그림2에서 보이듯, 세 변수 간 유의한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p=.065, p=.073, p=.102).</p>		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t	p	이해도	저빈도	4.071	.616	.250	.396	.791	고빈도	4.000	.618	유대감	저빈도	4.500	1.091	.334	.442	.884	고빈도	3.562	1.209
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t	p																						
이해도	저빈도	4.071	.616	.250	.396	.791																						
	고빈도	4.000	.618																									
유대감	저빈도	4.500	1.091	.334	.442	.884																						
	고빈도	3.562	1.209																									

변수	1	2	3
1. 답장-대화 전환	1	.332($p = .073$)	.341($p = .065$)
2. 사적 확장	.332($p = .073$)	1	.305($p = .102$)
3. 친밀감 향상	.341($p = .065$)	.305($p = .102$)	1

* $p > 0.05$

그림2. 인스타그램 스토리 답장-대화전환 상관분석

상대방의 과시적 스토리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 불편감, 열등감을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이어, 불편감을 종속변수로 두고 인지, 열등감을 독립변수로 두어 SPSS 28 프로그램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그림3에서 확인되듯, 과시적 스토리에 대한 인지는 불편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beta = .667, p < .001$). 반면, 열등감은 불편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beta = .189, p = .177$). **이 결과에 따르면, 상대방의 스토리를 과시적인 게시물로 인지할수록 해당 스토리에 대한 불편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모델에 영향을 주는 이상치와 영향치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화 오류	β	t	유의확률
	(상수)	.397	.520		.764	.451
과시 스토리 불편감	타인과시인지	.727	.149	.667	4.875	<.001
	스토리열등감	.205	.148	.189	1.385	.177

R = .767, 수정된 R2 = .558, F(2, 30) = 19.340, p < .001
 Durbin-Watson = 1.997, VIF < 10, max Cook's D = .152

* $p > 0.05$

그림3. 과시적 인스타그램 스토리 회귀분석

결론 및 제언

탐구를 통해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과시적인 게시물로 인지할수록 해당 스토리에 대한 불편감이 높아진다는 점이 확인됐다. 자신을 더 잘 표현하려는 심리에서 올리는 스토리 게시물이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스토리를 자주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수준의 이해도나 유대감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스토리를 계기로 발생하는 답장 및 반응은 친밀감 형성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은 단순한 노출 빈도가 아닌 상호작용을 촉발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할 때 관계 형성에 공헌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Key Words : 인스타그램 스토리, 과시, 불편감, T-검정, 다중회귀분석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제목 : 슷폼 많이 볼수록 슷폼중독 덜 자각	
참여 연구자	성명 : 김채영 ¹ 허만섭 ² 소속 : 자유전공학부 직위 : ¹ 학부학생 소속 : 보건복지대학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직위 : ² 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episteme@gwnu.ac.kr
<p>필요성 및 목적</p> <p>최근 모바일 미디어 환경에서 슷폼 콘텐츠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슷폼 이용이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p> <p>연구방법</p> <p>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미디어이슈5호<누가 슷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의 설문조사 공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전국 20~60대 남성 500명과 여성 500명, 총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고 있다. 20대는 210명, 30대는 210명, 40대는 210명, 50대는 210명, 60대는 160명이 응답하였다. SPSS 28 프로그램을 사용해 슷폼 이용 시간과 슷폼중독 인식에 대한 데이터를 상관 분석하였다. 본 탐구의 연구문제는 ‘स्थ्य 이용 시간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슷폼 중독을 잘 인식하는가?’이다.</p> <p>स्थ्य 이용 시간은 ‘귀하는 슷폼을 한 번 시청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6점 척도(1 = 1분 이내, 2 = 5분 이내, 3 = 10분 이내, 4 = 30분 이내, 5 = 1시간 이내, 6 = 1시간 초과)로 측정됐다.</p> <p>स्थ्य 중독 인식은 ‘귀하는 본인이 슷폼을 보는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점 척도(1 = 매우 많이 본다, 2 = 다소 많이 본다, 3 = 적당히 본다, 4 = 다소 적게 본다, 5 = 매우 적게 본다)로 측정됐다.</p> <p>연구결과</p> <p>기술통계량에서 ‘स्थ्य을 한 번 시청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평균 3.62라고 답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슷폼을 한 번 볼 때 평균 10~30분 정도 보는 것으로 확인된다.</p> <p>기술통계량에서 ‘본인이 슷폼을 보는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평균 2.62라고 답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이 슷폼을 보는 정도에 대해 ‘다소 많이 본다’와 ‘적당히 본다’의 중간 쯤으로 인식하는 편이었다.</p> <p>स्थ्य 이용 시간과 슷폼 중독 인식 간 상관분석 결과, 두 변수 간 피어선상관계수는 -.556이었고 $p < .001$로 나왔다(그림).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슷폼을 많이 볼수록 자신이 슷폼을 많이 본다는 것을 더 적게 인식한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슷폼을 많이 보는 사람은 슷폼을 적게 보는 사람보다 슷폼 중독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슷폼 중독 가능성을 훨씬 덜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p>	

		숏폼이용시간	숏폼이용인식
숏폼이용시간	Pearson 상관	1	-0.556**
	유의확률 (양측)		<0.001
	N	943	943
숏폼이용인식	Pearson 상관	-0.556**	1
	유의확률 (양측)	<0.001	
	N	943	943

** 상관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그림. 숏폼 이용시간과 숏폼 이용인식 상관분석

결론 및 제언

본 보고서의 결과는 숏폼이용시간과 숏폼 중독에 대한 인식이 반비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숏폼 이용자 스스로의 인지적 자각이 자신의 현실을 그리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낸다. 앞으로의 탐구 및 숏폼 중독 예방 교육은 숏폼 이용의 양적 지표뿐 아니라 인지적·심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Key Words : 숏폼 이용시간, 숏폼 중독 자각, 공개 데이터, 상관분석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제목 : 여행영상에 몰입하면 벌어지는 일															
참여 연구자		성명 : 이상범 ¹ 설지원 ¹ 허만섭 ² 소속 : 보건복지대학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직위 : ¹ 학부학생, ² 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episteme@gwnu.ac.kr													
<p>필요성 및 목적</p> <p>현대 사회의 대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학업 경쟁, 취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성과 일상생활의 활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행 및 힐링 관련 영상 콘텐츠는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 대리 만족과 심리적 위안을 얻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휴식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디어 소비 현상에 주목하여,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영상 시청 활동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해소와 여행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p> <p>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행영상으로의 몰입이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영상 시청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여행 의도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긍정적 심리 상태 증진 및 효과적인 관광 콘텐츠 기획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p> <p>연구방법</p> <p>5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집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먼저, 설문조사 속 질문간의 신뢰도 분석을 진행했다.</p> <p>그 다음으로 본 연구의 두 가설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설정된 두 가지 연구 가설,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관계의 유의성과 방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p> <p>연구결과</p> <p>먼저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 관련 응답들과 여행 의도 관련 응답들은 각각 크론바흐알파가 0.86과 0.75로 나왔다(그림1). 따라서 연구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신뢰도 통계량</th> <th colspan="2">신뢰도 통계량</th> </tr> <tr> <th>Cronbach의 알파</th> <th>항목 수</th> <th>Cronbach의 알파</th> <th>항목 수</th> </tr> </thead> <tbody> <tr> <td>.863</td> <td>6</td> <td>.757</td> <td>4</td> </tr> </tbody> </table> <p>그림1. 스트레스 해소(좌) 및 여행 의도(우) 응답들의 신뢰도</p>				신뢰도 통계량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863	6	.757	4
신뢰도 통계량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863	6	.757	4												

여행영상 시청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두 가지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1: 여행영상 시청에 몰입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스트레스 해소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여행영상 시청을 통해 경험하는 스트레스 해소 수준이 높을수록 여행 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설 1과 2는 채택됐다(그림2). 가설 1에 대한 결과, 수정된 R²이 0.270로 나타나 몰입 수준이 스트레스 해소 수준 변동의 약 27.0%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영상에 몰입 할수록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가설 2에 대한 결과, 수정된 R²이 0.333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해소 수준이 여행 의도 수준 변동의 약 3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여행영상 시청을 통해 스트레스를 더 해소할수록 해당 여행지로 가고 싶어 하는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요약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수정값의 표준오차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수정값의 표준오차
1	.534 ^a	.285	.270	.80380	1	.588 ^a	.346	.333	.71721

a. 예측자: (상수),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몰입한다.

a. 예측자: (상수), 스트레스

그림2. 가설1(좌측)과 가설2(우측)에 대한 회귀모형 요약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행/힐링 영상 시청이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설정된 두 가지 가설 모두 유의하게 채택됐다. 먼저, 여행 영상 시청에 깊이 몰입할수록 스트레스 해소 수준이 증가했다. 이어, 영상 시청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장소에 대한 여행 의도 수준도 상승했다. 영상을 단순히 보는 행위가 아닌, 영상에 몰입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심리적 회복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52명의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했으며, 모든 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를 두 개의 개별적인 단순 회귀분석으로만 검증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Key Words : 여행영상 몰입, 스트레스 해소, 여행 의도,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제목 : 팀플엔 카톡, 개인적 연락엔 인스타DM	
참여 연구자	성명 : 이정민 ¹ 이동빈 ¹ 허만섭 ² 소속 : 보건복지대학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직위 : ¹ 학부학생, ² 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episteme@gwnu.ac.kr
<p>필요성 및 목적</p> <p>본 연구는 20대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DM을 사적 소통 채널로 많이 활용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20대의 주 이용 SNS가 인스타그램이고 DM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인스타그램은 시각적, 휘발성 콘텐츠와 즉각적 반응(스토리·릴스 연동 DM 등)을 통해 친밀한 소통을 강화하는 반면, 카카오톡은 연락처 기반의 공식적이고 광범위한 네트워크 유지에 강점이 있다. 본 연구자들의 병행 사용이 기능적 보완을 보이는지 알아본다. 20대가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을 병행 사용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구조화해 제시하고 플랫폼별 사용 맥락도 도출하고자 한다.</p> <p>연구방법</p> <p>20대 5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11월 구글 폼 설문조사를 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p> <p>RQ1: 20대는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에 대해 다른 이용 목적과 충족 욕구를 갖는가? RQ2: 20대는 친밀하고 감정적인 소통을 할 때 인스타그램 DM을 카카오톡보다 더 선호하는가? RQ3: 20대는 업무적 연락엔 카카오톡이 인스타그램 DM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인식하는가? RQ4: 20대는 카카오톡을 공식적 관계를 위한 플랫폼으로 인식할 때 더 자주 이용하는가? RQ5: 인스타그램DM 선호그룹은 카카오톡 선호그룹보다 DM을 개인적 연락에 더 적합하다고 느끼는가? RQ6: 인스타그램DM 선호그룹은 카카오톡 선호그룹보다 두 메신저의 병행사용에 더 만족하는가?</p> <p>분석방법으로 SPSS 2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정, ANOVA, 교차분석 등을 진행했다.</p> <p>연구결과</p> <p>분석결과, 20대 응답자의 88.2%는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DM을 모두 사용한다고 했다.</p> <p>이용 목적 및 충족 욕구(RQ1)에선 카카오톡은 중요한 소통에 적합하다고 인식됐다. 업무, 일정 등 중요한 정보 전달에 카카오톡이 더 적합하다는 인식은 인스타그램DM이 더 적합하다는 인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평균 4.34 > 3.56, p<.001). 20대 응답자들은 카카오톡을 중요한 일정, 정보 전달용으로, 인스타그램 DM을 일상적 콘텐츠 공유용으로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p> <p>친밀하고 감정적인 소통(RQ2)에서 앱 선호도는 인스타그램 DM(48%)과 카카오톡(45%) 비중이 비슷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1.00). ‘개인적 연락에 더 적합한 앱’에 대한 DM과 카톡의 평균값도 중립(3점)에 가까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p> <p>업무적 소통 효율성 인식(RQ3)에서 응답자들은 카카오톡을 팀플 등 공식적, 업무성격 소통에 더 효율적인 매체로 매우 유의미하게 인식했다(평균 4.34, p<.001).</p>	

공식성 인지와 이용 의도(RQ4)에선 카카오톡을 공식적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할수록 일일 사용도가 높아지는 유의미한 경향이 나타났다.(상관계수 $r=0.379$, $p=0.0079$) 인스타그램 DM의 공식성 인지와 사용 빈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는 20대가 카카오톡을 주된 기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인식하고 공식적인 전달 수단으로 볼수록 사용을 늘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적 연락 수단 및 병행 사용 만족도(RQ5-6)의 경우, 인스타그램 DM을 선호하는 그룹은 카카오톡 선호 그룹에 비해 인스타그램을 개인적 연락 수단으로 더 적합하다고 인식했으며($p<0.01$) 두 플랫폼 병행 사용 만족도도 더 높게 나타났다($p<0.01$).

결론 및 제언

이번 분석은 20대 사용자들이 '이용과 충족' 관점에서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을 명확히 분화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카오톡은 '공식적이고 중요한 대화'를 위한 기본적 소통 도구로 인식된다. 카카오톡의 공식성 인지도가 높을수록 사용 빈도도 높았다. 인스타그램 DM은 '친밀하고 가벼운' 소통, 비공식적 콘텐츠 공유, 그리고 자기 개성 표현을 위한 보조 채널로 활용된다. 인스타그램 DM 선호 그룹은 개인적 연락 적합성과 병행 사용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20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과 '친한 친구'와의 소속감을 표현하려는 경향과 일치했다.

이러한 행태는 '디지털 플랫폼과 세대 정체성' 개념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이 세대별 정체성 형성 및 문화 규정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메시징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기획 시, 20대의 재미, 관계 유지, 자기 표현 등 세분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플랫폼별 본질적 가치 이해해야하며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이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디지털 세대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각 플랫폼의 본질적인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미래 플랫폼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Key Words : 인스타그램DM, 카카오톡, 병행사용, 업무적 연락, 개인적 연락, T-검정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제목 : AI 의존도와 일 미루기	
참여 연구자	성명 : 이선우 ¹ 이희민 ¹ 허만섭 ² 소속 : 보건복지대학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직위 : ¹ 학부학생, ² 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episteme@gwnu.ac.kr
<p>“AI 의존도가 높고 집중력이 낮을수록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p> <p>필요성 및 목적</p> <p>최근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AI 의존도가 개인의 학습태도와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의존도와 집중력이미루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자기조절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p> <p>연구방법</p> <p>AI 의존도, 집중력, 미루기 행동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구글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배포-수거됐다. AI 의존도는 3개 문항으로 측정했으며, 각 응답점수를합산한 후 평균을 산출해 단일변수로 구성했다(신뢰도분석 $\alpha = .820$). 집중력도 3개 문항을 사용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다(신뢰도분석 $\alpha = .874$). 미루기 행동 변수는 ‘나는 해야 할 일을 미루는 편이다’라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됐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그렇지않다, 5=매우그렇다)로 구성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8 프로그램으로 분석했으며,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기초통계치를 확인한 후 상관분석,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했다.</p> <p>연구결과</p> <p>본탐구는 “AI 의존도가 일을 미루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집중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가설(그림)을 설정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효과 분석을 했다. 종속변수로 미루기행동을, 독립변수로 AI 의존도중심화를, 조절변수로 집중력중심화를 뒀다. 1단계에서 AI의존도중심화는미루기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41, p = .005$), 집중력중심화는 미루기 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beta = -.53, p < .001$). 모델의 설명력은 수정된 $R^2=.465, p < .001$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AI의존도-집중력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이 상호작용항은 미루기 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1, p = .029$). 집중력이 AI의존도와 미루기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일 가능성이 있었다. 2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수정된 $R^2=.539, p = .029$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AI에 많이 의존하는 대학생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경향성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성은 이 학생의 집중력이 약할수록 심화된다’라고 할 수 있다.</p> <p>연구결과</p> <p>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단계에서 상태지수는 최대 1.471으로 기준치(15 이하)를 충족했으며, 변수 간 분산이 특정 차원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특정 차원에 분산이 다소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됐으나, 다중공선성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 잔차의 평균은 0, 표준편차는 약 1.0으로 정규분포를 충족했으며, 스튜던트화 잔차의 범위는-2.113에서 3.227으로 나타나 대부분 ± 3 이내에 포함됐다. Cook’s 거리의 최대값은 .518로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중심화된 레버리지 값의 최대값은 .451로 일부 사례에서 비교적 높은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나, 표준화 잔차도 ± 3 이내에 있어 전체 모형에 영향</p>	

을 줄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회귀모형은 안정적이며 기본 가정을 충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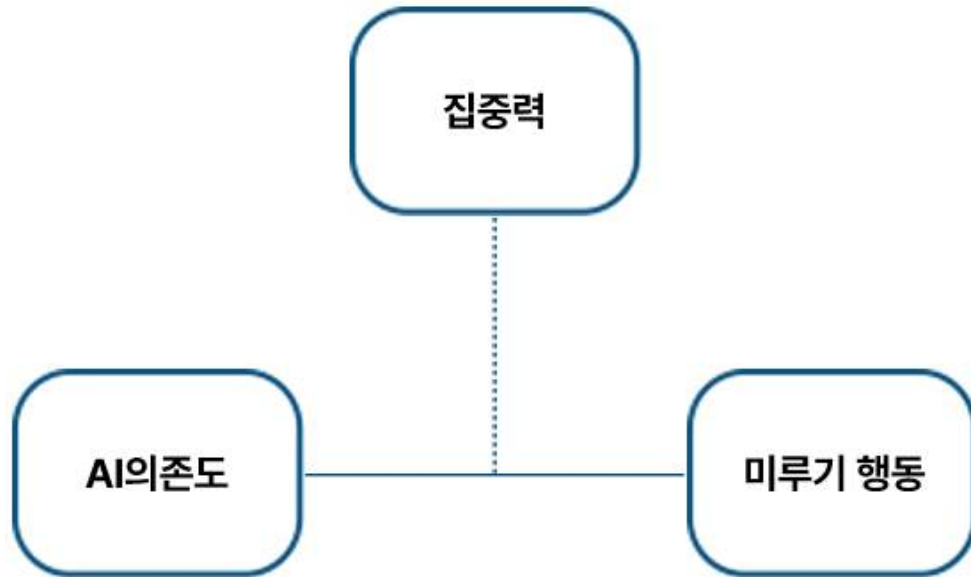


그림. AI 의존도, 집중력, 미루기 모형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AI 의존도, 집중력, 미루기 행동 간 관계를 분석하고, 집중력이 AI 의존도와 미루기 행동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했다. 분석결과, 집중력은 미루기 행동의 강력한 예측요인이었으며, 집중력이 낮을수록 미루기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I 의존도도 미루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 상호작용항분석을 통해 AI 의존도가 미루기에 미치는 영향은 집중력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조절 효과가 예상됐다($\beta = .31, p = .029$). 즉, AI 의존도가 높을 때 일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고 집중력이 낮은 개인일수록 미루는 행동이 더욱 강하게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AI 활용과 디지털 기술 의존이 단순히 편의성을 높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생활 습성(미루기)과 인지적 자기 조절 능력(집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AI 기반 업무환경이나 학습환경에서는 개인의 생산성과 집중력 수준을 고려한 보완적 접근이 필요하다.

Key Words : AI 의존도, 집중력, 미루기 행동, 신뢰도 분석, 조절효과 분석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p>제목 : 강원도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건강위험 행위가 자살 관련 행위에 미치는 영향 :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이용하여*</p>	
<p>참여 연구자</p>	<p>성명 : 소유진¹ 이하은¹ 박시원¹ 이규림¹ 장소연¹ 김은주² 소속 :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직위 : ¹학부학생, ²교수</p>
<p>교신저자 연락처</p>	<p>e-mail : kimeju@gwnu.ac.kr</p>
<p>필요성 및 목적</p> <p>청소년 자살률 1위 지역인 강원도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관련 요인을 다루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강원도 내 중·고등학생의 정신건강 문제, 건강위험 행위 및 자살 관련 행위를 분석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와 자살 관련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p>	
<p>연구방법</p> <p>2024년 제 20차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활용한 이차분석연구이며, 자료 중 강원도 소재 30개교의 1,907명 학생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된 변수는 성별, 학교급별(중학교, 고등학교)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인지, 범불안장애, 슬픔 및 절망감, 외로움 경험 등의 정신건강문제 변수와 건강위험행위변수들이었다. 연구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카이제곱 검정, Spearman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이었다.</p>	
<p>연구결과</p> <p>정신건강 문제 측면에서 여성 청소년이 남성보다 범불안장애(GAD-7), 스트레스 인지, 외로움 경험 및 슬픔과 절망감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다($p < .001$). 여성은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이 남성보다 현저히 높아 정서적 고위험군으로 파악되었다. 건강위험 행위 분석에서는 평생 음주 경험이 남성에서 더 높았으나, 최근 30일 간 음주 빈도와 만취 경험은 여성에서 빈번하게 나타나 여성 청소년의 최근 위험 음주 행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흡연과 전자담배 사용 역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학교급별 분석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p = .039$), 자살 생각의 빈도는 고등학생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p < .001$). 상관분석 결과, 불안 수준(GAD-7 점수)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인지, 슬픔 및 절망감, 외로움 경험, 자살 생각과 계획 경험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여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두드러졌다. 자살 관련 행위에서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불안 수준(GAD-7), 스트레스 인지, 슬픔과 절망감, 습관적 및 의도적 약물 사용 경험, 음주빈도가 주요 영향요인이었으며, 약물 사용 경험이 자살 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다중회귀분석 모델은 자살 시도를 약 21.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결론 및 제언</p> <p>강원도 청소년의 자살시도와 관련있는 변수들을 확인하고자 정신건강과 건강위험행위를 분석한 결과, 불안, 스트레스, 슬픔과 절망감 등의 정신건강문제와 습관적 약물사용, 음주빈도가 영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성과 고등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에 강원도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성별 및 학교급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예방 교육은 물론 스트레스, 불안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마음건강프로그램이 촘촘히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물과 금주를 위한 보건 교육 도입은 절실</p>	

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강원도 청소년의 높은 자살시도 빈도를 고려할 때, 강원도 청소년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빅데이터분석은 물론 광범위한 지역코호트조사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Key Words :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경험, 자살 생각, 자살시도, 흡연, 음주, 약물

*2025년 6월 20일 한국아동간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제목 :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 사회 비교 경향,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참여 연구자	성명 : 김지원 ¹ 김초은 ¹ 박정모 ¹ 조솔원 ¹ 허나예 ¹ 길민지 ² 소속 :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직위 : ¹ 학부학생, ² 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jiwon4812@naver.com
<p>필요성 및 목적</p> <p>대학생은 SNS 환경에 둘러싸여 사회 비교에 취약한 시기로, 다양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저하를 경험한다.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스트레스 취약성을 예측하는 핵심 지표이다. 그러나 SNS 중독 경향, 사회 비교 경향,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통합적으로 살핀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 사회 비교 경향,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대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p>	
<p>연구방법</p> <p>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 사회 비교 경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강원특별자치도 W시 소재 대학생 1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SNS 중독 경향 척도, 사회 비교 경향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변량분석, Pearson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p>	
<p>연구결과</p> <p>본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은 SNS 중독 경향($r = -.305, p < .001$)과 사회 비교 경향($r = -.430, p < .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지지($r = .439, p < .001$)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중회귀분석의 사회 비교 경향($\beta = -.341, p < .001$)과 사회적 지지($\beta = .437, p < .001$)는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나, SNS 중독 경향은 유의하지 않았다($\beta = -.152, p = .061$). 회귀모형 설명력은 38.5%이었다.</p>	
<p>결론 및 제언</p> <p>사회 비교 경향은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SNS 중독 경향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 비교를 줄이고, 사회적 지지 경험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향후 종단 연구를 통해 인과적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p>	
<p>Key Words : Self-esteem, SNS addiction tendency, Social comparison, Social support, College students</p>	



제목 : 미혼 대학생의 가족 가치관, 가족 건강성이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참여 연구자	성명 : 박미주 ¹ 소수범 ¹ 이승우 ¹ 정혜리 ¹ 최수민 ¹ 김서연 ² 소속 :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직위 : ¹ 학부학생, ² 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sykim@gwnu.ac.kr
<p>필요성 및 목적</p> <p>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이며 향후 인구감소와 노령사회에 따른 사회 구조와 보건복지 시스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은 예비부모로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들의 긍정적인 가족가치관과 가족건강성 형성은 출산의지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칠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대학생의 가족가치관과 가족건강성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건강한 출산환경을 위한 간호교육과 출산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p>	
<p>연구방법</p> <p>본 연구는 미혼대학생의 가족가치관(결혼관, 자녀관, 성역할인식)과 가족건강성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전국에 있는 미혼 대학생으로 2025년 5월12일부터 16일까지 대학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모집하였으며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1명을 제외하고 총 176명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s coefficients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p>	
<p>연구결과</p> <p>출산의지는 자녀관($r=.63, p<.001$), 보수-도구적 결혼관($r=.41,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소극-배타적 결혼관($r=-.42, p<.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출산의향은 자녀관($r=.66, p<.001$), 보수-도구적 결혼관($r=.43, p<.001$),안정-낭만적 결혼관($r=.28, p<.001$),가족건강성($r=.25, p<.001$)과 양의상관관계를, 소극-배타적 결혼관($r=-.32,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관($\beta=0.54, p<.001$),소극-배타적 결혼관($\beta=-0.31, p<.001$),성별($\beta=0.51, p<.001$)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9.2%이다.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관($\beta=0.62, p<.001$),소극-배타적 결혼관($\beta=-0.21, p<.001$)이었고 설명력은 46.2%이다.</p>	
<p>결론 및 제언</p> <p>본 연구 결과, 미혼 대학생은 자녀관이 긍정적일수록, 소극-배타적 결혼관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출산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미혼대학생들의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자녀와 양육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성별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 더불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p>	
<p>Key Word : 대학생, 출산의지, 가족 가치관, 가족 건강성</p>	



제목 : 임상실습 중 탄력 압박스타킹 착용에 따른 간호학생의 하지 부종, 피로도 및 착용에 대한 만족도	
참여 연구자	성명 : 김영민 ¹ 유승윤 ¹ 정수임 ¹ 최소정 ¹ 최예은 ¹ 현지윤 ¹ 안정원 ² 소속 :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직위 : ¹ 학부학생, ² 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jwahn@gwnu.ac.kr
<p>필요성 및 목적</p> <p>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중 신체적 피로를 많이 경험하므로, 하지 부종 및 피로 완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중재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탄력 압박 스타킹 착용이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간호대학생들의 하지 부종 및 피로도에 미치는 효과와 착용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p> <p>연구방법</p> <p>본 연구는 단일군 전후 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W시 G대학교 3~4학년 간호학과 학생 30명이며, 연구 기간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였다. 하지 부종은 유리섬유 줄자를 이용한 종아리 둘레 측정으로 평가하였고, 하지 피로도는 CIS(피로도 척도)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과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압박 스타킹의 착용 만족도는 긍정적·부정적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p> <p>연구결과</p> <p>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상실습 후 종아리 둘레와 피로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p < .001$), 착용 기간에는 종아리 둘레와 피로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1$). 이는 압박 스타킹 착용이 하지 부종과 피로 완화에 효과적인 중재임을 보여준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다리 통증 감소, 피로도 완화, 부종 감소, 다리의 가벼움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반면, 압박감·조임으로 인한 불편감, 착·탈의의 어려움, 열감 및 통풍 부족 등은 불평 사항으로 보고되었다.</p> <p>결론 및 제언</p> <p>본 연구는 임상실습 중 탄력 압박 스타킹 착용이 간호대학생의 하지 부종 및 피로도 감소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조군 부재, 자가 보고 및 측정법의 사용,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가 검증되지 않은 한글판 CIS 척도의 사용 등 연구의 제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 사용 및 통제된 환경에서의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p> <p>Key Words : 탄력 압박 스타킹, 하지 부종, 피로도, 간호대학생, 임상실습</p>	



제목 : 인공지능 태도, 인공지능 리터러시, 성장 마인드셋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참여 연구자	성명 : 김도현 ¹ , 김태윤 ¹ , 오가현 ¹ , 오선민 ¹ , 박민주 ¹¹ 이민혜 ² 소속 :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직위 : ¹ 학부학생, ² 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leemh@gwnu.ac.kr
<p>필요성 및 목적 : 간호대학생은 임상에서 복잡한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요구되며, 이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준비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 리터러시, 성장 마인드셋이 문제해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p> <p>연구방법 G대학교 간호학과 1~4학년 재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Pearson 상관분석과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수 간의 관계와 예측력을 분석하였다.</p> <p>연구결과 본 연구 대상자 성별은 여성이 87.4%로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24.2세로 나타났다. 성장 마인드셋, 인공지능 리터러시, 인공지능 태도 모두 문제해결 자신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p < .001$),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장 마인드셋이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확인되었다($\beta = .405$). 세 변수를 포함한 최종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3.5%($\text{adj. } R^2 = .435$)로 나타났다.</p> <p>결론 및 제언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도전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성장 마인드셋을 강화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교육에서 AI 리터러시 및 심리적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간호사의 AI 기반 실무 역량 향상과 현장 적응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 개편의 필요성을 제언한다.</p>	

* 2025년 6월에 한국아동간호학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연구임



제목 : 대학생의 건강문해력, 건강신념, 자기통제 수준이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미치는 영향*	
참여 연구자	성명 : 권해령 ¹ , 민채연 ¹ , 박찬유 ¹ , 이한희 ¹ , 장유경 ¹ , 정선환 ¹ , 이한나 ² 소속 :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직위 : ¹ 학부학생, ² 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hannalee@gwnu.ac.kr
<p>필요성 및 목적</p> <p>최근 대학생들은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건강무관심 증가로 인해 건강위험 행동이 높아지고 있어 건강증진행위를 강화할 수 있는 개인 요인 분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강문해력, 건강신념, 자기통제는 건강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심리·인지적 변수로 알려져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 변수를 통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건강문해력, 건강신념, 자기통제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건강증진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p> <p>연구방법</p> <p>본 연구는 W시 소재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18~28세 대학생 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자료는 2025년 5월 7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건강문해력, 건강신념, 자기통제, 건강증진행위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6.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검정, 일원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p> <p>연구결과</p> <p>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85.54, p<.001$), 건강증진행위의 65.9%를 설명하였다($\text{adjusted } R^2=.659$). 주요 영향요인은 자기통제($\beta=.553, p<.001$)와 건강문해력($\beta=.392, p<.001$)이었으며, 두 요인은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건강신념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p=.483$).</p> <p>결론 및 제언</p> <p>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문해력 증진과 자기조절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 중재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 내 보건교육, 상담 프로그램, 디지털 기반 건강정보 제공 등 다양한 교육 전략의 개발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한계와 횡단 설계를 보완하고, 건강신념의 매개·조절효과 및 하위요인을 탐색하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p> <p>Key Words : 건강문해력, 건강신념, 자기통제, 건강증진행위</p>	

* 2025년도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연구임



제목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참여 연구자	성명 : 김동욱 ¹ , 서술희 ¹ , 조아현 ¹ , 이남경 ¹ , 박수빈 ¹ , 유송이 ¹ , 장수정 ² 소속 :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직위 : ¹ 학부학생, ² 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sjchang@gwnu.ac.kr
<p>필요성 및 목적</p> <p>간호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은 이론과 실재를 연결하며, 간호전문직 성장에 필수적이다. 임상실습만족도는 학습 몰입, 전공 흥미, 전문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공만족도는 진로 적응과 학업 지속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평가이다. 간호전문직 정체성은 학습 참여 및 졸업 후 직업 유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신규 간호사의 이직 문제와도 관련된다. 이러한 정체성은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에 의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간호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p> <p>연구방법</p> <p>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W시 소재 간호대학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3, 4학년 재학생이다. 일반적 특성 7문항, 전공만족도 12문항, 간호전문직 정체성 18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5년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Google Survey)으로 자료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T-tests, ANOVA (사후 검정: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s coefficients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p> <p>연구결과</p> <p>총 12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75±0.58점,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4.00±0.70점, 간호전문직 정체성은 5점 만점 중 평균 3.70±0.57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r=.63, p<.001$), 간호전문직 정체성($r=.6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 정체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57, p<.001$).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1단계 위계에서는 성별($p=.004$)과 학년($p=.006$)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통제변수의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설명력은 11.5%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포함된 2단계 위계 모형에서는 설명력이 53.7%로, 42.2%p($F=33.67, p<.001$)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임상실습만족도($\beta=0.52, p<.001$)가 전공만족도($\beta=0.23, p=.007$)보다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p> <p>결론 및 제언</p> <p>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경험의 질을 높이는 교육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실습 기회 제공을 넘어, 멘토링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체계적 실습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p> <p>Key words: 간호대학생,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정체성</p>	

* 2025년 한국간호과학회 제91차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연구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제목 :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	
참여 연구자	성명 : 권민지 ¹ , 이유진 ¹ , 유지민 ¹ , 임유빈 ¹ , 장예빈 ¹ , 정문지 ¹ , 조명선 ² 소속 :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직위 : ¹ 학부학생, ² 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lucy2717@naver.com
<p>필요성 및 목적</p> <p>최근 우리나라 20대에서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대비 2021년 20대 우울증과 불안증 환자 수는 각각 127.1%, 86.8% 증가하였다. 국제적으로도 대학생 집단에서 우울·불안이 가장 빈번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학생 상당수는 사회적 낙인 및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전문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접근성에 제한이 있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 최근 AI·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챗봇 등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의 실효성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챗봇은 접근과 맞춤형 증재가 용이해 대학생 정신건강 영역에서 혁신적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챗봇 기반 인지행동치료(CBT)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 증상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전통적 자기주도 책 기반 프로그램과의 효과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p> <p>연구방법</p> <p>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적용한 유사실험연구로, 대학 재학생 만 19~24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개 집단(챗봇 기반 실험군 22명, 책 기반 대조군 23명)에 배정하였으며, 각 집단은 2주간 CBT 원리에 기반한 증재를 받았다. 챗봇 증재군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10차시 AllyMate 프로그램을, 대조군은 동일 내용의 자기주도 책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효과 평가를 위해 우울(PHQ), 불안(GAD)을 증재 전(1회차), 2주 증재 후(2회차), 4주 후(3회차)로 반복 측정하였다. 자료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시간, 집단, 상호작용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토하였다.</p> <p>연구결과</p> <p>실험군(챗봇)과 대조군(책)의 우울 점수 변화 분석 결과, 실험군은 1회차 5.23점에서 3회차 3.82점으로, 대조군은 4.09점에서 3.39점으로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시간·집단·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불안 점수는 시간 주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집단 간 차이 및 시간×집단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아, 두 집단 모두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불안 점수는 감소하였으나 챗봇과 책 프로그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p> <p>결론 및 제언</p> <p>챗봇 기반 CBT 프로그램과 전통적 자기주도 책 기반 프로그램 모두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 완화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 설계 하에서는 두 증재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디지털 증재가 대면상담·오프라인 자기주도 프로그램과 동등한 효용성을 갖는다는 국제 메타분석, 대규모 임상연구들과도 일치한다. 디지털 CBT는 접근성과 경제성, 자율성 측면에서 대학생 집단에 실용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효과의 최대화 및 장기 지속을 위해 프로그램 몰입도, 사용성, 맞춤형 등 다양한 요인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 및 장기추적 디지털 증재 연구, 그리고 실제 사용자 경험 및 특성 기반 하위집단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생 정신건강 정책 및 임상현장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p> <p>Keywords: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Anxiety, Digital Intervention</p>	



제목 :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 태도와 인공지능 리터러시 능력이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참여 연구자	성명 : 강민지 ¹ , 김병구 ¹ , 박규리 ¹ , 장우정 ¹ , 정하늬 ¹ , 최지은 ¹ , 전재희 ^{1,†} 소속 :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직위 : ¹ 학부학생, ² 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jhjeon@gwnu.ac.kr
<p>연구 배경 및 목적</p> <p>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간호 교육 현장에서도 인공지능(AI) 활용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AI 기반 교육은 맞춤형 학습 등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학습자가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과도하게 의존하여 비판적 사고와 학습 주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판적 사고는 임상 현장에서 정확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역량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AI 태도와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효과적인 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p> <p>연구 방법</p> <p>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 W시 소재 3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중 AI 사용 경험이 있는 141명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 도구는 한국어판 인공지능 태도(GAAIS-K), 한국어판 AI 리터러시, 간호대학생용 비판적 사고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을 이용하여 빈도,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p> <p>연구 결과</p> <p>대상자의 비판적 사고는 5점 만점에 평균 3.78점, AI 리터러시 4.23점, AI 태도 2.94점이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AI 리터러시는 비판적 사고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194, p=.021$)를, AI 태도는 부적(-) 상관관계($r=-.339, p<.001$)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AI 리터러시($\beta=.196, p=.012$), AI 태도($\beta=-.234, p=.003$), 학업성취도 '하'($\beta=-.192, p=.021$), 2학년($\beta=-.180, p=.032$)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4.5%였다. 이는 AI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가 증진되나,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는 오히려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p> <p>결론 및 제언</p> <p>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리터러시 능력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가 증진되지만, AI에 대한 막연하고 맹목적인 긍정적 태도는 오히려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간호 교육과정은 AI 기술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 AI가 산출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윤리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AI의 원리 이해와 비판적 활용 훈련이 통합된 균형 잡힌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한다.</p>	



제목 : 성공적 노화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참여 연구자	성명 : 김민경 ¹ , 이여원 ¹ , 한지은 ¹ , 이행옥 ² 소속 :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직위 : ¹ 학부학생, ² 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holee1@gwnu.ac.kr
<p>필요성 및 목적</p> <p>성공적 노화(sexism)는 Rowe와 Kahn(1998)의 노화 수준 구분에서 최적의 노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과 환경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화의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갖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권중돈, 2025)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p> <p>연구방법</p> <p>노인복지 학습동아리에 참여한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은 성공적 노화를 나타내는 사진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8일부터 7월 2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p> <p>연구결과</p> <p>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은 성공적 노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종 선택한 사진은 ‘할머니 꽃단장 해주는 행복한 노부부’, ‘다 함께 손잡고 즐기는 행복한 노후’, ‘선글라스를 쓰고 환한 미소로 드라이브를 즐기는 세 할머니’이고, 설명은 다음과 같다.</p> <p>‘할머니 꽃단장 해주는 행복한 노부부’는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이다. 참여자가 본 사진 속 노부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손질해주는 남편과 그 모습을 웃으며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이 정말 따뜻하고 보기 좋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보는 일이 익숙해진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저도 나중에 저런 관계를 맺고 싶다는 소망이 들었다 (김 ○○)라고 사진을 설명했다.</p> <p>‘다 함께 손잡고 즐기는 행복한 노후’,는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이다. 참여자가 본 사진은 노년이 되면 나 자신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활동을 잊지 않고,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여 취미활동을 즐기며 노후를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 ○○)라고 사진을 설명했다.</p> <p>‘선글라스를 쓰고 환한 미소로 드라이브를 즐기는 세 할머니’ 는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이다. 참여자가 본 사진은 노년기에도 활기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친구 또는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외로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한 ○○)라고 사진을 설명했다.</p> <p>결론 및 제언</p> <p>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을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하여 성인기 초기에 진입하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한 방향을 인식하고,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p> <p>Key words: 성공적 노화</p>	



보건복지연구소
운영진

이세원(소장, 사회복지학과)

장수정(학술부장, 간호학과)

유선영(기획부장, 다문화학과)

이선영(운영위원, 사회복지학과)

박진이(운영위원, 유아교육과)

허만섭(운영위원,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박아름(간사, 사회복지학과)